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와 성격, 부모진로지지 및 사회인지요인의 관계 분석

A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Personalit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하 재 영

## 국문초록

#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와 성격, 부모진로지지 및 사회인지요인의 관계 분석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하 재 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격,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의 대학생이며, 4년제 일반 대학생은 2017년 기준 한국의 4년제 대학생은 총 1,467,125명으로 수도권 572,418명, 비수도권 894,707명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집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되 설문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성별 및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탐색의도,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일반적 특성 총 9가지 영역을 질문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진로탐색의도는 1요인 10문항, 성실성 1요인 10문항, 외향성 1요인 10문항, 개방성 1요인 10문항, 부모진로지지 5요인 20문항, 진로학습경험 5요인 20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요인 8문항, 진로결정결과기대 2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영역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에 응답자 성별, 연령, 학년 및 전공계열, 학교 소재지 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은 선택형 응답과 서술형 응답형식을 혼용하였다. 조사도구 중 번안이 필요한 문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번안하였으며, 수정문항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19일 까지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학교별 협력자 1-2명에게 약 40부 정도의 설문을 의뢰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로는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구명

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확인하였으며 경로분석 모형 적합도 및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R 3.6.1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 인과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대표하기에 적합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부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함께 유의미하게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직접경로의 경우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학습경험은 성격 및 부모진로지지의 외부적 요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를 매개하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작용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실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쳐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는 데 특히 부모진로지지 및 진로학습경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모형 검증 및 모형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학습경험 척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 시켜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 가설 ····· 4
4. 용어의 정의 ····· 6

II. 이론적 배경 ····· 9

1. 대학생의 진로 발달 ····· 9
2. 사회인지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및 진로자기관리모형 ····· 12
3. 성격,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 ····· 36
4. 사회인지요인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55
5. 성격, 사회인지요인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61
6.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65

III. 연구 방법 ····· 69

1. 연구모형 ····· 69
2. 연구대상 ····· 70
3. 측정 도구 ····· 73
4. 자료 수집 ····· 83
5. 자료 분석 ····· 83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89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89
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정규성 검증 및 상관관계 ····· 90

3. 가설적 모형 분석 ·····95
4. 최종 구조 모형 분석 ·····99
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12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19
1. 요약 ·····119
2. 결론 ·····120
3. 제언 ·····121

참고문헌 ····· 123

[부록 1] 측정 도구 번안 과정 ····· 133
[부록 2] 측정 도구 구인타당화 결과 ····· 143
[부록 3] 측정 도구 ····· 145

# 표 차례


<표 Ⅱ-1> Ginzberg, Super, Tiedeman & O' Hara 이론에서의 대학생 시기의 진로특성 ·····12
<표 Ⅱ-2> 사회인지진로모형 비교 ·····25
<표 Ⅱ-3> Lent et al.(2016)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27
<표 Ⅱ-4> Lent et al.(2016)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27
<표 Ⅱ-5> Lent et al.(2017)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29
<표 Ⅱ-6> Lent et al.(2017)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30
<표 Ⅱ-7> Ireland(2017) 연구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31
<표 Ⅱ-8> 전미리(2017)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32
<표 Ⅱ-9> 전미리(2017)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32
<표 Ⅱ-10> Ireland & Lent(2018)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35
<표 Ⅱ-11> Ireland & Lent(2018)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36
<표 Ⅱ-12>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근거 종합 ·····68

<표 Ⅲ-1> 4년제 대학의 지역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기준) ·····71
<표 Ⅲ-2> 4년제 대학의 전공계열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기준) ·····72
<표 Ⅲ-3> 4년제 대학의 전공계열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기준) ·····72
<표 Ⅲ-4> 측정도구(설문지) 구성 ·····74
<표 Ⅲ-5> 진로탐색의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6
<표 Ⅲ-6> 성실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7
<표 Ⅲ-7> 외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7
<표 Ⅲ-8> 외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8
<표 Ⅲ-9> 부모진로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8
<표 Ⅲ-10> 진로학습경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80
<표 Ⅲ-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81
<표 Ⅲ-12> 진로결정결과기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83
<표 Ⅲ-13> 연구 가설별 통계기법 ·····83
<표 Ⅲ-14> 연구 가설별 통계기법 ·····86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0
<표 Ⅳ-2> 변인의 일반적 특성 ·····91

<표 Ⅳ-3> 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92
<표 Ⅳ-4> 변인 간 상관행렬 ·····93
<표 Ⅳ-5>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96
<표 Ⅳ-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97
<표 Ⅳ-7> 변인의 다중상관자승 ·····98
<표 Ⅳ-8> 모형수정 과정에서의 모형별 카이제곱 변화량 ·····98
<표 Ⅳ-9> 최종 모형의 적합도 ·····100
<표 Ⅳ-10>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경로계수 ·····101
<표 Ⅳ-11>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효과분해 ·····103
<표 Ⅳ-12> 변인의 다중상관자승 ·····105
<표 Ⅳ-13> 성격,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경로계수 ··105
<표 Ⅳ-14> 성격,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효과분해 ··107
<표 Ⅳ-15>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경로계수 ·····109
<표 Ⅳ-16>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효과분해 ·····110

# 그림 차례

[그림 Ⅱ-1] 진로 선택 모형 ·····20
[그림 Ⅱ-2] 만족 모형 ·····21
[그림 Ⅱ-3] 진로 자기 관리 모형 ·····22
[그림 Ⅱ-4] Lent et al.(2016)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27
[그림 Ⅱ-5] Lent et al.(2017)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28
[그림 Ⅱ-6] 전미리(2017)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32
[그림 Ⅱ-7] Ireland & Lent(2018)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34

[그림 Ⅲ-1]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70
[그림 Ⅲ-2] 층화군집비율표집 과정 ·····73

[그림 Ⅳ-1] 변인의 히스토그램, 변인 간 산포도 및 상관행렬 ·····94
[그림 Ⅳ-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95
[그림 Ⅳ-3] 최종 모형 분석 결과 ·····9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일의 세계는 매우 복잡해지며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 및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직종 및 직업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안정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일의 세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통계청(2018)에 따르면 2018년 8월 생산연령인 청년층(15-29)의 실업률은 10.0%로 외환위기였던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여건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의 소멸 및 새로운 일자리의 생성으로 인하여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직업 및 평생진로라는 측면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일의 세계 속에서 개인은 평생에 걸쳐 진로 탐색 및 결정을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여러 가지 정보 및 기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 및 결정하는 진로 관리 활동이 중요해졌다.

진로 관리 활동은 이렇듯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나, 특히 대학생 시기는 본격적으로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 탐색 및 결정 경험이 이후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진로 자기관리 관점에서 대학생시기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대학생들이 심각한 진로 고민의 부정적인 결과로서 의욕 상실 등을 겪고 있는 현상(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과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과 같은 주체적인 행동에는 자발적인 동기 및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학생 시기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가 가장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진로 선택 및 진로 만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의 상대적인 부족은 관련한

이론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최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새롭게 등장한 진로자기관리 모형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 진로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자기관리 모형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며, 특히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에 주목하여 진로탐색의도를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는 환경적/맥락적 요인들이 진로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결과기대는 다시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진로탐색의도는 진로탐색행동을 야기하며, 진로탐색행동의 결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불안 등의 결과가 등장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는 진로탐색 및 결정 결과는 진로학습경험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Lent & Brown, 2013). 진로자기관리모형의 순환성은 진로자기관리 모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 형성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로탐색의도 형성까지의 모형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는 진로탐색의도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직, 간접적인 경로들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의도를 형성하는 인과적인 과정에 주목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진로탐색의도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간접적인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진로탐색의도는 사회인지요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통해 형성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는 또 다른 사회인지요인인 진로학습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의도와 사회인지요인인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 요인 역시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주요 특성으로 진로자기관리 모형에서 간주된다. 성격요인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성격이 진로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Brown & Hirschi, 2013) 최근 다양한 진로 연구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성격 요인은 개인의 기저에 있는 특성으로서 개입에 따른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설정하는 여타 인지요인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주요 요인이며, 성격과 인지적 요인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인지적 요인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와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므로(권석만, 2015; Roberts, Kuncel, Shiner, Caspi, & Goldberg. 2007) 성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또한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진로탐색의도와 관계가 있다고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실성 및 외향성을 성격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 개방성도 주요한 성격변인으로 고려하였는데 이는 개방성의 하위 요인인 긍정정서가 진로탐색의도를 높이기에(전미리, 2017)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는 주요 성격요인으로 간주한 결과이다. 한편,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Lent, Ezeofor, Morrison, Penn, & Ireland, 2016; 전미리, 2017) 진로탐색의도와 여러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경로를 함께 고려하였다.

환경 요인 역시 진로자기관리 모형에서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데,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맥락으로는 부모진로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가족들의 영향력을 확인되고 있으며(최수정, 2007; Whiston. & Keller, 2004) 자녀에 진로발달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임, 김창대, 2009; 선혜연, 김계현, 2007). 진로 탐색 및 결정의 과정에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 탐색 과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의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부모진로지지를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의도를 형성하는 개인의 사회인지적, 성격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최신 모형인 진로자기관리모형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격,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 3. 연구 가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주어진 경험적 자료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대학생의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1.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가. 진로탐색의도

진로탐색의도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의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의지, 자신의 특성과 진로 대안을 적절하게 연계하려는 의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요인척도(IPIP) 중 성실성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나. 성격

1) 성실성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규칙,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끈기의 정도와 실수 없이 자신의 일을 잘 추진해나가는 성격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성, 책임감, 성취지향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요인척도(IPIP) 중 성실성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2) 외향성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성, 지배성, 자극추구, 활동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요인척도(IPIP) 중 외향성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 개방성

개방성은 개인의 심리 및 경험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능, 상상력, 고정관념의 타파, 심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 다양성에 대한 욕구, 품위 등과 관련된 특질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요인척도(IPIP) 중 개방성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다. 부모진로지지

부모진로지지란 자녀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독립적, 적극적이 되도록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이상희, 2009), 이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희(2009)의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Scale for college students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라. 사회인지요인

1) 진로학습경험

진로학습경험이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 학습, 긍정정서각성 및 부정정서각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CEDLE(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earning Experienc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Lent, Ireland, , Penn, Morris, & Sappington, 2017).

###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 및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Lent et al., 2016)하며, 이는 일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탐색 능력, 가능한 진로 경로 탐색 능력, 자신의 능력과 진로 대안과의 매칭 능력, 진로 결정 및 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CEDSE 척도(Lent et al., 2016)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3) 진로결정결과기대

진로결정결과기대란 자신의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이 내적, 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결정결과기대는 내적 결과기대, 외적 결과기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결과기대를 Lent & Brown(2013)가 개발한 결정결과기대를 진로 탐색 및 결정 맥락으로 적용하여 수정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의 진로 발달

### 가. 생애발달이론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 발달

생애발달이론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Buhler는 인생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된다고 보았으며, 전반부는 성장-확장 동기(성취, 힘, 창조성, 자아실현)가 지배하며 후반부는 위축 경향성(간접적인 대리만족)이 지배한다고 보았다. 또한 생물학적 발달이 성장, 안정, 감퇴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 사회적 발달도 확장, 절정, 위축의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5가지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김애순, 2002). 이에 따르면 15-25세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생물학적으로는 성장 및 성적 재생산의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단계이다. 정신(psyche)에 초점을 두어 생애를 4단계로 구분한 C. Jung에 따르면(김애순, 2002) 대학생은 청년 및 성인초기 단계로서 '정신적 탄생(psychic birth)'를 하게 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지위를 구축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김영은, 2009).

Erikson(1976)은 개인의 생애가 8단계로 구분된다고 보았으며, 해당 단계에서의 발달 과업을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자아가 양극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은 다섯 번째 단계인 '청년기'에 속하고 청년기 단계의 '정체감 대 역할혼란'이라는 발달과제를 거치게 된다. 청년기 시기 개인은 내적으로 심리적, 신체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사회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이후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정체성 혼미에 빠질 수 있다.

Levinson(1996)은 개인의 생애를 크게 4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이전기,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단계 구분을 살펴보면, Levinson(1996)은 각 단계가 맞물리는 시기를 성인초기 전환기, 중년의 전환기, 성인후기 전환기로 보아 별도의 3단계를 추가하였으며, 성인초기와 성인중기를 각각 3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총 11개의 생애 단계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은 성인초기 전환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개인의 정체성 형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1982)은 한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생애를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의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은 4번째인 청년후기에 속하며 결혼 및 직업생활 준비, 사회적 지식, 견문 넓히기, 독립적 생활태도 및 건전한 생활관 확립, 도덕적 판단력과 행동 함양, 건강한 생활습관 익히기 등의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자면, 대학생 시기는 생물학적으로 성장을 완료하고 성적으로 재생산하는 시기이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개인의 목표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부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나. 진로발달이론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발달

Ginzberg는 발달적 관점을 진로이론에 처음으로 접목시킨 연구자로서(박완성, 2003) 진로발달단계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하였다. 먼저 환상기는 6세부터 10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현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직업을 선택하여 추구하되 이를 놀이 형태로 관심을 표현한다. 잠정기는 11세부터 17세까지의 시기로, 현실적인 외적 요인들을 간주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실기는 18세 이후부터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대학생은 이 단계에 포함되며 현실기는 탐색단계, 구체화단계, 특수화 단계로 세분화된다.

탐색단계는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는 시기이고, 구체화 단계는 진로 및 직업목표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특수

화단계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구체화시키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Super는 Ginzberg와는 달리 진로발달이 아동기에서부터 성인초기까지의 시기로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uper는 진로 발달을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기(0-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2-24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65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탐색기는 세부적으로 3가지 단계, 잠정기(15-17세), 전환기(18-21세), 시행기(22-24세)로 구분되는데 대학생은 전환기와 시행기에 해당된다. 전환기는 진로 및 직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시행기는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해서 최초로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즉 Super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획득하게 되는 시기이다.

Tideman과 O' hara는 진로발달이 진로/직업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간주하였고 진로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적응, 개혁, 통합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진로 선택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 취업한 이후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진로 선택을 할 때마다 일련의 진로발달 단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야하는 시기이되, 특히 진로발달의 초기 단계(진로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에 집중해야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진로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최초로 진로 및 직업을 획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 Ginzberg, Super, Tiedeman & O'Hara 이론에서의 대학생 시기의 진로특성

| 구분 | 발달단계 | 대학생 시기 발달단계 및 과업 | |
|---|---|---|---|
| Ginzberg (1951) | ① 환상기<br>② 잠정기<br>③ 현실기 | 현실기 (탐색, 구체화, 특수화 단계) | • 탐색기 :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는 시기<br>• 구체화기 : 진로 및 직업목표를 결정하는 시기<br>• 특수화단계 : 자신이 내린 결정을 구체화시키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시기 |
| Super (1953) | ① 성장기<br>② 탐색기<br>③ 확립기<br>④ 유지기<br>⑤ 쇠퇴기 | 탐색기 (전환기, 시행기) | • 전환기 : 진로 및 직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시기<br>• 시행기 :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해서 최초로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 |
| Tiedeman & O'Hara (1963) | ① 탐색기<br>② 구체화기<br>③ 선택기<br>④ 명료화기<br>⑤ 순응기<br>⑥ 개혁기<br>⑦ 통합기 | 전 과정 (특히 탐색,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 | • 탐색기 : 진로 목표 및 대안을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기<br>• 구체화기 : 구체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br>• 선택기 :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br>• 명료화기 : 선택한 진로를 검토하여 확정하는 시기<br>• 순응기 : 선택한 진로에서 적응하는 시기<br>• 개혁기 : 선택한 진로에서 인정을 받은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기<br>• 통합기 : 선택한 진로에서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를 통합하는 시기 |

## 2. 사회인지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및 진로자기관리모형

### 가. 사회인지이론

Bandura(1986)에 의하면 사회인지이론에서 인간은 세 가지 상호인과관계를 포함하는 상호의존적 인과구조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개인과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에 의하면 인지적, 정서적 또는 생물학적 사건들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과 행동, 그리고 환경적 사건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적 결정인자로서 작용한다. 개인의 내적 요인, 행동 그리고 외부 환경들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것들이 똑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호간의 영향은 모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결정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해서, 또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달라진다.

세 가지 주요 연결 중에 개인, 행동의 상호간 인과관계는 사고, 정서,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개인의 기대 ,신념, 자기인지, 목표 그리고 의도는 행동의 형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믿고 느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자연적이고 외부적인 효과는 그들의 사고 패턴과 감정적 반응을 부분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적 요인은 또한 생물학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 구조와 감각기관, 신경계의 체계는 행동과 능력에 있어서의 강요와 억압에 영향을 주며, 감각체계, 두뇌구조는 행동경험들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Bandura, 1986).

두 번째로 환경, 개인의 상호 간의 관계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 정보전달, 모델링을 통한 감정적 반응의 활성화, 교육 그리고 사회적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적 영향에 의해 인간의 기대, 신념, 감정적 열중 그리고 인지적 역량들은 개발되고 변경된다. 사람들은 연령, 신장, 인종, 성 그리고 매력과 같은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과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반응을 보인다. 즉, 그들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관찰되는 특성에 의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 환경의 상호인과 관계이다. 인간의 삶에서는 행동이 환경 조건을 바꾸고 또한 환경 조건에 의해 행동은 변화되는 일이 매일 일어난다. 여기서 환경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며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Bandura, 1986).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은 이동성이 강제되어 질 때, 개인이 그것을 좋아하던지 간에 그들을 침해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은 그들이 적절한 행동으로 활동할 때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Bandura, 1986, 1989). 즉,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잠재적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실제 환경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Bandura, 1986, 1989).

이러한 삼자 상호결정론에 입각하여 사회인지이론은 다섯 가지 인간의 기본능력을 통한 상호간의 영향을 설명한다. 다섯 가지 기본능력은 상징능력, 대리학습 능력, 선견 능력, 자기조절 능력, 자기 반영능력이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자

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근원이 매우 중요한 기제로서 등장하는데 자기효능감은 향후 등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또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확장되게 된다.

## 나. 사회인지진로이론

###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등장배경 및 중요성

특성-요인 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진로이론에서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강조하고 이 둘의 매칭을 강조하였던 반면(전미리, 2017) 1981년에 등장한 Betz & Hackett(1981)의 연구에서는 이 두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즉, Betz & Hackett(1981)는 사회인지요인의 삼자 상호결정론에 입각하여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만으로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김봉환(2010)에 따르면, 이 연구는 이후 결과기대, 목표 등과 같은 인지적 기제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이론에서 제시했던 개인 특성과 환경 변인이 이러한 인지적 기제에 통합됨으로써 하나의 이론체계로서의 '사회인지진로이론' 이 정립되게 되었다(김봉환, 2010).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인식의 측면을 진로 결정 과정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진로 상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외적으로 그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개인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진로 상담 절차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2)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요개념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요개념으로는 인지적 변인(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과 개인 및 배경 변인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인지적 변인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인지 기제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이에 따라 모든 사회인지이론의 모형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바,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인지적 기제가 개인 및 배경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지적 기제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써 개인 및 배경 변인이 인지적 변인과 더불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인 및 배경 변인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 가) 인지적 변인(학습경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우선 학습 경험을 살펴보면, 학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육성하는 이론화된 기제(mechanism)이기 때문에 사회인지 진로 모형의 핵심이다. Betz는 “학습 경험은 자기효능감의 초기 발달을 이해하고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약한 사람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언급했다(Betz, 2007; Bike, 2013에서 재인용). 또한, Bike에 따르면 특정 사람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 학습 경험은 다른 사람의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는 학습 경험의 가중치가 각 개인이 경험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Bike, 2013).

학습경험의 하위구인으로는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정서적 각성(긍정/ 부정)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주로 부정정서에만 주목해 왔으나 긍정 정서의 영향력이 최근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긍정 및 부정 정서 각성 모두를 학습경험의 하위 구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ike, 2013). 학습경험의 하위구인이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 및 부정 정서 각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특정 일을 수행할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특정 일을 ‘잘 한다’ 는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을수록, 자신의 주변에 특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간접적으로 성공 경험을 가질 기회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적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경험이 많을수록 해당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및 성공적인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앞서 상술한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목표한 과

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을 의미한다(Bandura, 1986; 김봉환, 2010에서 재인용).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의 태동과 함께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며, 이론이 전개되어 관련 연구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개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준과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잇는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효능감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효능감을 의미한다. 특수적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익숙한 업무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하며, 개인이 특정한 영역에서 문제에 봉착하여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인 경우 이를 쉽게 극복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영은(2009)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자기효능감은 크게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milestone self-efficacy), 대처효능감(coping 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은, 2009). 특수적 영역으로서의 적용을 지향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수학 혹은 공학 등과 같이 특정 영역의 학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영은, 2009; Lent et al., 2001). 대처효능감이란 "어떠한 일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어떤 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선택과 행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 (Lent, Brown & Hackett, 2000; 김영은, 2009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결과기대는 어떤 일을 수행하였을 때 얻게 될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며 자기효능감과 함께 사회인지이론에서 중요한 구인으로 여겨진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개인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포착한 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면 결과기대는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기대)을 의미한다. 김영은(2009)에 따라 이 두 가지 개념을 다시 설명하자

면, 어떤 일에 대해 자기효능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며 어떤 일에 대해 결과기대를 갖는 다는 것은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김봉환(2010)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의 원인은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을 통해 결과기대도 함께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김봉환, 2010). 또한 Ireland & Lent(2018)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과 목표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인지 기제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기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2010).

마지막으로, 목표란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혹은 미래에 얻을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Bandura, 1986; Lent, Brown & Hackett, 1994에서 재인용)로 정의된다. Lent et al(2014)에 따르면 목표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 결과를 목표라는 것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고, 성과를 달성하려는 개인 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작동한다. 또한 목표는 진로 선택과 결정 이론에서 대개 암묵적인 형태로 등장하지만,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는 중요한 변인이나, 김봉환(2010)에 따르면 결과기대와 마찬가지로 목표에 대한 검증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다. 목표에 대한 내용에는 진로 결정, 전공 선택 등 다양한 진로 관련한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결국 목표란 특정 행동에 대한 탐색적 의도로 개념화되므로 목표와 의도는 같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 나) 개인 및 환경 변인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인지적 변인 외에도 개인 및 환경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김봉환(2010)에 따르면 개인 변인에는 성별, 인종 혹은 민족, 장애나 건강 상태, 유전적 재능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인 변인들은 독립적으로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개인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한 경험을 형성하고, 이러한 경험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김봉환, 2010). 이때, 개인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형성하는 환경을 배경 맥락 요인이라 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진로 발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므로 개인 특성은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개인 특성은 주로 선천적으로 주어지거나 변화할 수 없는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가치나 적성 등은 개인 변인으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루어진다(김봉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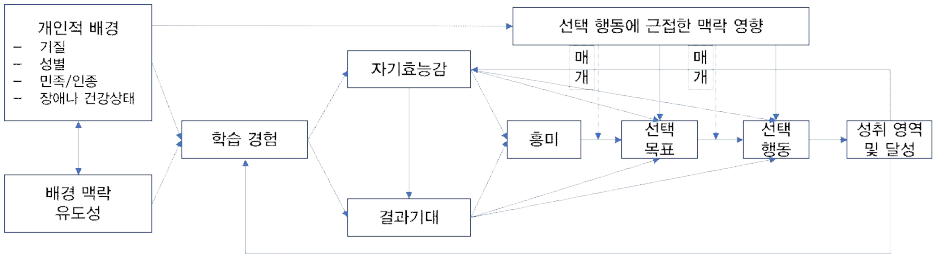
환경 변인은 배경 맥락 요인과 근접 맥락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둘의 강조점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있다. 김봉환(2010)에 따르면, 배경 맥락 요인이 개인 진로 발달의 초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근접 맥락 요인은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경 맥락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토대가 되는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가족, 사회, 문화 등 개인을 둘러싼 거시적인 차원의 배경을 의미한다. 근접 맥락 요인은 가족, 사회 등 개인을 둘러싼 상황의 물질적 및 정서적 지원 혹은 장벽을 의미한다. 즉, 근접 맥락 요인에는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시기의 경제 상황,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 등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뿐 아니라 가정의 정서적 지원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포함된다(김봉환, 2010). 김봉환(2010)에 따르면, 환경 변인이 중요한 까닭은 개인 변인과 비교하였을 때 환경 변인은 외부의 개입을 통하여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개인변인은 외부의 개입을 통하여 변화하기가 어렵지만 환경 변인은 외부의 개입을 통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진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김봉환, 2010).

### 3)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에는 흥미 모형, 진로 선택 모형, 수행 모형, 만족 모형 및 진로 자기 관리 모형 5가지가 있다. 그런데 김봉환(2010)에 따르면, 진로 선택 모형이 흥미 모형과 수행 모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김봉환, 2010)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크게 진로 선택 모형, 만족 모형 및 진로 자기 관리 모형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3 가지 모형은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통하여 행동이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에 여러 환경 변인 들이 영향을 미치며 상호 작용 한다는 기본 골격은 공통적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를 비교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 선택 모형은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특정 진로에 대한 흥미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흥미를 갖게 된 영역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고 해당 진로에서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우선 흥미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및 배경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육성된 학습 경험을 통하여 개인은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특정 영역에 대한 흥미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흥미를 통하여 흥미를 갖게 된 영역으로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목표)를 갖게 되며, 의도는 그 진로를 선택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근접 맥락 변인은 선택 의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영역에 대한 흥미가 의도로 발전하는 과정 및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개자 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취는 순환적으로 학습경험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개인이 가진 흥미와 목표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보았다.

김봉환(2010)에 의하면, 흥미가 목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진로 장벽이다. 진로 장벽은 기본적으로 진로 목표의 성취를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지만,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주로 환경 요인 중에서도 근접 맥락 변인에서의 방해 요인을 일컫는 것으로 개념화된다(김봉환, 2010).




[그림 Ⅱ-1] 진로 선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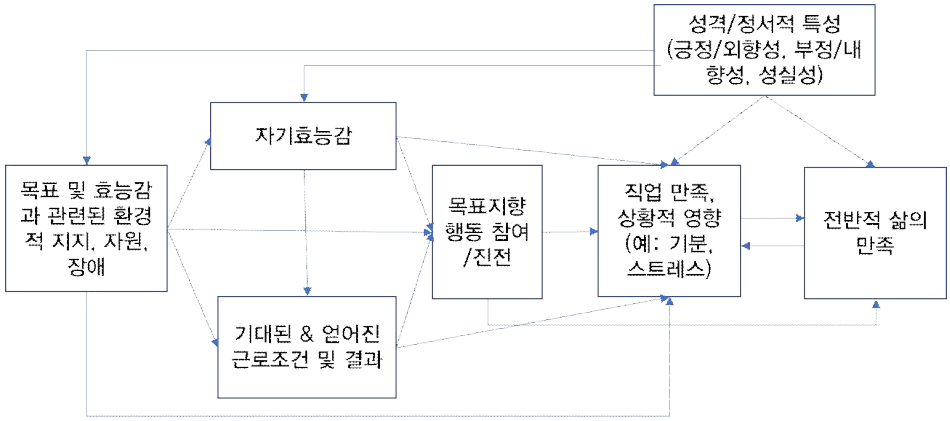
자료 : Lent, Brown, &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이후 만족 모형에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경험하여 지각하게 되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행복의 근거가 부재하여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만족 모형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인지적, 심리적, 환경적 기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족 모형에서는 환경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며 이는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의 참여 의도 및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목표 지향 행동은 직업의 만족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만족 모형에서도 진로 선택 모형과 동일하게 배경 맥락 변인이 인지적 기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배경 맥락 변인이 단지 학습 경험에만 영향을 주었던 진로 선택 모형과는 달리 만족 모형에서는 배경 맥락 변인이 목표, 직업 만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만족 모형에서는 진로 선택 모형에서의 흥미가 배제되고 성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적응적 행동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흥미보다는 진로 결정의 필요성과 같은 발달적 압박, 진로 탐색 의도 등 개인적 목표, 역경 및 지원과 같은 환경적 고려에 의해서 더 추동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 이다(Lent & Brown, 2013).

진로 선택 모형이 개인이 선택하는 진로의 내용에 관심을 둔다면, 만족 모형은 주관적 만족감(직업 만족 및 삶의 만족)에 도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을 개인의 성격과의 관련성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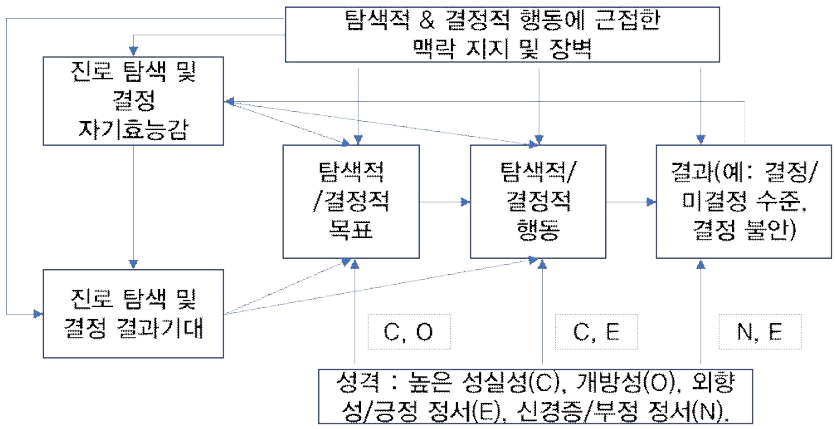

[그림 Ⅱ-2] 만족 모형

자료 : Lent, & Brown.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진로 자기 관리 모형은 적응적 진로 행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등장하였다. 기존의 진로 선택 모형이 특정 영역에 대해 선택을 하는 것을 중시하였다면, 즉 '무엇을' 선택할 지에 대한 모형이었던 반면, 진로 자기 관리 모형은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진로자기관리모형은 개인의 일생에서 진로 탐색과 결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에 진로 탐색 및 결정의 과제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필수적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진로 선택 모형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효능감이 내용효능감이었다면 진로 자기 관리 모형에서 다루는 효능감은 과정 효능감 및 대처 효능감으로 상정된다(Lent & Brown, 2013). 진로 선택 모형에서는 주로 수학, 공학 등 특정 영역에 대한 효능감을 다루는 반면(김영은, 2009; Lent et al., 2001), 진로 자기 관리 모형에서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다룬다(Ireland & Lent, 2018; Ireland, 2017).

진로 자기 관리 모형에서는 만족 모형과 동일하게 흥미 대신 성격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Lent & Brown(2013)에서는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 외향성 4가지 성격을 모형에 투입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성실한 사

람일수록 진로 탐색 의도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행동을 더 잘 할 것이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 탐색 의도를 높게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실제로 탐색 행동을 수행하며, 탐색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보았다. 반면 신경증인 사람일수록 탐색 결과가 좋지 못할 것, 즉 미결정 수준이 높고 결정 불안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 Ⅱ-3] 진로 자기 관리 모형

자료 : Lent, & Brown.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진로자기관리모형은 그동안의 사회인지진로이론 연구가 진로의 '여정(journey)'이 아닌 목적지(destination)에 관심이 있었다는 발상에서 개발되었다. 이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변화하는 환경 조건이란 경제적 불확실성, 경제적 및 기술적 진보, 직업 안정성의 저하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이 진로 과업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며, 이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진로관리에 대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로결정 및 실직 등의 미시적인 진로 과업에 대하여 어떻게 협상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적응적 진로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이 개발되었다(Lent & Brown, 2013).

이러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은 기존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들을 대체하는 것

이 아닌 보완하는 모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진로자기관리모형은 기존의 조직 심리 및 직업 심리 선행연구에서 독립적으로 제시되던 연구주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개념적인 틀(framework) 내에서 각 문헌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모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모형을 통하여 연구 및 실제현장에서의 적용에 새로운 방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관심이 있는 행동들(진로 탐색 및 결정 등)은 일반적으로 '적응적 진로 행동' 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진로 과정 기술(career process skills), 진로 역량(competencies), 메타 역량(meta-competencies), 자기조절(self-regulation), 대처 기술(coping skills) 및 적응적 수행(adaptive performance)등의 구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적응적 진로 행동은 Savickas(1997, 2013)의 진로 적응력(career adaptability)과 관련되어 있는데, 두 개념 모두 '변화' 의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탄력성을 가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개인이 자기 조절 과정, 사회적 자원 등에 의존한다는 가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도 두 관점은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적 진로 행동이 근로자가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 맥락에서 구현할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면, 진로자기관리모형은 진로 추구(pursuits)에 있어서 진로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선행인으로서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및 사회 맥락적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Lent & Brown, 2013).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진로적응력은 개념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진로적응이라는 특성이 개인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성과는 환경적지지(친구, 가족 구성원 등) 및 사회인지적 요인(자기효능감 등) 뿐 아니라 특정한 특질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적응적 진로 행동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적/매개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직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보다 많은 구직 기회와 직업 제안(job offer)을 얻게 하겠으나, 이것이 반드시 빠르거나 성공적인 입직의 경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경제적인 요

인 등)을 고려한다면, 적응적 진로행동이 그것이 원하는 궁극적인 결과와 다소 미미하게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응적 진로행동은 개인이 진로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실행 가능한 수단이며 따라서 적응적 진로 행동의 선행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Lent & Brown, 2013).

진로자기관리모형은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며, 진로탐색의도가 진로탐색행동을 높이고, 이러한 행동이 진로결정/미결정 수준 및 결정 불안 등의 진로탐색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또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은 진로 탐색 결과가 진로학습경험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진로자기관리모형에 제시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에서 개인의 진로 탐색 의도, 행동 및 결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진로탐색의도는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이므로 이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Irelnad & Lent(2018)에서 제시한 수정된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Ireland & Lent(2018)의 연구모형을 한국대학생들에게 검증한다는 연구목적을 설정하되, 진로학습경험을 개별적으로 본 Ireland & Lent(2018)와 달리 진로학습경험을 하나의 변인으로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되는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을 성격요인으로 투입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고자 사회적지지 대신 부모진로지지를 투입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하였고, 지지원(사회적지지 혹은 부모진로지지)과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관계를 생략하였으며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하였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

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3가지 모형을 각각의 주요한 특징을 위주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다만, 진로자기관리모형의 경우 Lent & Brown(2013) 연구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진로자기관리모형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모형 비교를 위해서는 진로자기관리 모형의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는 Lent & Brown (2013)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표 Ⅱ-2〉 사회인지진로모형 비교

| 구분 | 진로선택모형 (1994) | 만족모형 (2008) | 진로자기관리모형 (2013) |
|---|---|---|---|
| 모형의 관심사 | 내용 | 결과(만족) | 과정 |
| | 무슨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 일에서의 만족 및 삶의 만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어떻게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수행할 것인가? |
| 흥미 | 있음 | 없음 | 없음 |
| 성격 | 없음 | 있음 | 있음 |
| | | 효능감에 영향 | 목표, 행동, 결과에 영향 |
| | |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효능감 | 성실성, 개방성→목표<br>성실성, 외향성→행동<br>신경증, 외향성→결과 |

## 다. 진로자기관리모형의 경험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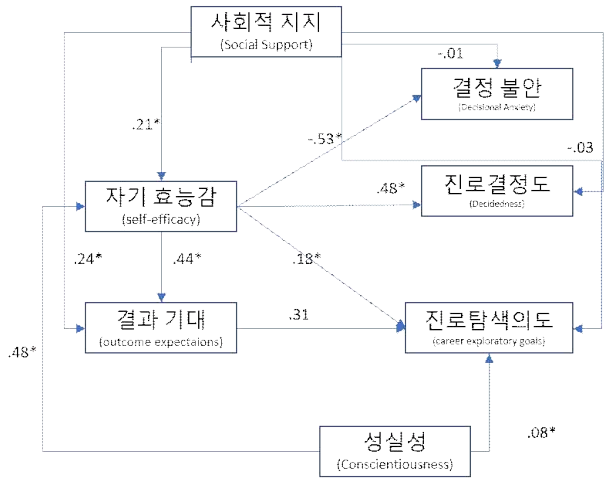
### 1) Lent et al.(2016)의 연구

Lent et al.(2016)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 새로운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의 연구를 수행하였고(각각 표본 수 180명 및 215명)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서 성격 요인 중 성실성만을 투입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한 까닭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기존의 척도인 CDSE가 (a) 정확한 자기 평가, (b) 정보, (c) 목표 선택, (d) 미래 계획, (e) 문제 해결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의 계획 활동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자기 및 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 문제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EDSE는 (a) 일과 관련된 자아 찾기, (b) 가능한 진로 경로 탐색, (c) 자아 및 진로 연계, (d) 진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 (e) 결정 방해요소 및 결정 이후 후회에 대처라는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크게 CEDSE 개발 및 요인분석, 모형의 검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CEDSE은 5가지 요인으로 개발되었으나 요인분석 및 검증 결과 2요인으로 산출되었다. 자아 탐색, 진로 탐색, 자아 및 진로 연계, 진로 결정 및 실행의 4가지 요인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음이 드러났고 이를 결정효능감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나머지 하나의 요인은 대처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문항 수를 살펴보면, 총 12개 문항으로 개발된 CEDSE의 결정효능감에는 8개 문항이, 대처효능감에는 4개 문항이 부하되었다. 그러나 대처효능감의 4가지 문항은 결정효능감에도 기준치 이상으로 교차 부하 되었으며, 명확하게 두 요인이 구분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CEDSE의 가정은 자아 탐색, 진로 탐색, 자아 및 진로 연계가 각각 별개의 진로 결정 측면을 제시한 것이지만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은 각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t et al.(2016)은 해당 결과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의도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하지 않거나, 환경적 압박(재정적 및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선택지가 몇 개 없는 제한적인 진로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혹은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진로 탐색 및 결정의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층 및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경험의 부족이 진로 탐색 및 결정 단계를 구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변인 간 직접 경로의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그림 Ⅱ-3] 참고). 특히, 성실성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격(성실성, 개방성)과 진로탐색의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만 설정하였던 진로자기관리모형의 확장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Ⅱ-4] Lent et al.(2016)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표 Ⅱ-3〉 Lent et al.(2016)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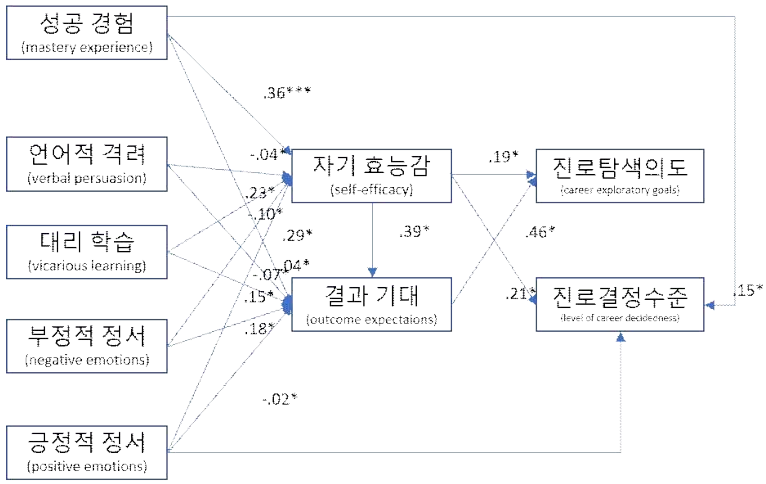
| 경로 | | | β | p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44* | <.05 |
| | | 진로탐색의도 | .18* | <.05 |
| | | 진로결정도 | .48* | <.05 |
| | | 진로결정불안 | -.53* | <.05 |
| 진로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31* | <.05 |
| 사회적 지지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1*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24* | <.05 |
| | | 진로탐색의도 | .22* | <.05 |
| | | 진로결정도 | -.03 | >.05 |
| | | 진로결정불안 | -.01 | >.05 |
| 성실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48* | <.05 |
| | | 진로탐색의도 | .08 | >.05 |

〈표 Ⅱ-4〉 Lent et al.(2016)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 경로 | B | S.E. | 95%CI | |
|---|---|---|---|---|
| | | | 하한 | 상한 |
| 성실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의도 | .07 | .04 | .01 | .15 |
| 성실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06 | .02 | .03 | .10 |
| 사회적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불안 | -.26 | .09 | -.43 | -.10 |
| 사회적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도 | .25 | .09 | .09 | .45 |

2) Lent et al.(2017)의 연구

Lent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로학습경험 척도를 개발 및 검증하였다. 진로학습경험이 진로탐색의도 및 진로결정과의 간접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 검증하였으며, 보다 더 용이한 검증을 위하여 진로학습경험 척도(CEDLE)의 약식 버전의 검증 또한 시도하였다. 진로학습경험은 Bike(2013)가 개발한 진로학습경험 척도가 구성한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는데, Bike(2013)는 성공 경험, 사회적 설득, 대리 경험 및 부정 정서 각성으로 구성된 4가지 학습경험 하위요인을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경험, 긍정 정서 각성 및 부정 정서 각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Ⅱ-5] Lent et al.(2017)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진로학습경험의 요인분석 결과,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5가지 요인이 아닌 4가지 요인이 존재함이 나타났다. 성공 경험과 언어적 격려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탐색 및 의사 결정과 같은 과정 영역이 성공적인 성과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담론' 을 통하여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TEM 활동 영역에서도 성공 경험과 언어적 격려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Sheu, Lent, Miller, Truong, Penn, Cusick, 2016),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진로학습경험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분산의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설명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학습경험 척도의 요인구조를 더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후속 연구를 요청하며,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설명하는 근원적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공 경험 및 긍정정서 각성은 진로결정의 예측자로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정 진로학습경험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추가 연구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표 Ⅱ-5〉 Lent et al.(2017)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 경로 | | | β | p |
|---|---|---|---|---|
| 성공 경험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36*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4 | >.05 |
| | | 진로결정도 | .15* | <.05 |
| 언어적 격려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4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7 | >.05 |
| 대리 학습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3*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5* | <.05 |
| 부정 정서 각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0*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8* | <.05 |
| 긍정 정서 각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9*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2 | >.05 |
| | | 진로결정도 | .28* | <.05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39* | <.05 |
| | | 진로탐색의도 | .19* | <.05 |
| | | 진로결정도 | .21* | <.05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46* | <.05 |

〈표 Ⅱ-6〉 Lent et al.(2017)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 경로 | p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05 |
| 진로학습경험(대부분)→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05 |
| 진로학습경험(대부분)→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05 |
| 성공경험→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05 |
| 긍정정서각성→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05 |

### 3) Ireland(2017)의 연구

Ireland(2017)의 연구에서는 개발된 진로학습경험의 척도인 CEDLE를 정교화하고, 해당 척도를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진로학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진로학습경험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자료는 21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가설적 관계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간접효과는 비모수적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결정결과기대와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등 진로자기관리에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관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다고 검증되었으나 일부는 예측된 것 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Lent et al.(2017)과 달리, 대리학습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니었으며, 진로 학습경험의 어떤 변인도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유의한 관계가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학습과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이르는 경로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크게 매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으며, 많은 간접효과에도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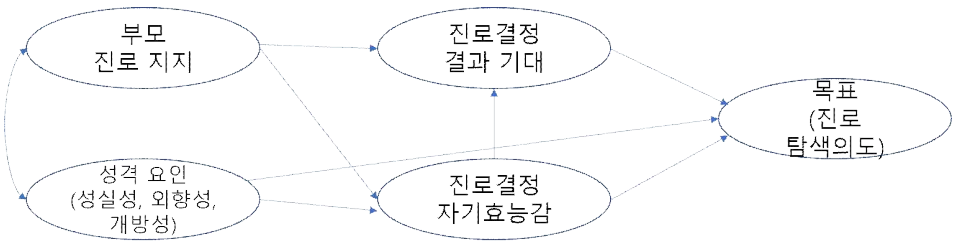
〈표 Ⅱ-7〉 Ireland(2017) 연구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인 | 1단계 | β | p | 2단계 | β | p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 .28** | <.01 | 사회적 지지 | .09 | >.05 |
| | 성실성 | .33** | <.05 | 성실성 | .08 | >.05 |
| | | | | 성공 경험 | .24** | <.01 |
| | | | | 언어적 격려 | .16* | >.05 |
| | | | | 대리학습 | .05 | >.05 |
| | | | | 부정정서각성 | -.13* | <.05 |
| | | | | 긍정정서각성 | .23* | <.05 |
| 진로결정결과기대 | 사회적 지지 | .38** | <.01 | 사회적 지지 | .32* | <.05 |
| | 성실성 | -.12 | >.05 | 성실성 | -.09 | >.05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5* | <.05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5* | <.05 |
| | | | | 성공 경험 | -.07 | >.05 |
| | | | | 언어적 격려 | -.06 | >.05 |
| | | | | 대리학습 | .14 | >.05 |
| | | | | 부정정서각성 | .08 | >.05 |
| | | | | 긍정정서각성 | .10 | >.05 |
| 진로탐색의도 | 사회적 지지 | -.01 | >.05 | 사회적 지지 | .02 | >.05 |
| | 성실성 | .10 | >.05 | 성실성 | .09 | >.05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4 | >.05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2 | >.05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37** | <.01 | 진로결정결과기대 | .33** | <.01 |
| | | | | 성공 경험 | -.10 | >.05 |
| | | | | 언어적 격려 | .18 | >.05 |
| | | | | 대리학습 | -.06 | >.05 |
| | | | | 부정정서각성 | .20** | >.05 |
| | | | | 긍정정서각성 | .10 | >.05 |

### 4) 전미리(2017)의 연구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수도권 및 충청권 대학생 44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 전미리(2017)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표 Ⅱ-8〉 전미리(2017)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 경로 | | | | β | p |
|---|---|---|---|---|---|
| 모형 1 | 부모진로지지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52*** | .000 |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78** | .004 |
| | 성실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342*** | .000 |
| | | | 진로탐색의도 | .133* | .020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84** | .002 |
| | | | 진로탐색의도 | .271*** | .000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412*** | .000 |
| 모형 2 | 부모진로지지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96*** | .000 |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76** | .004 |
| | 개방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309*** | .000 |
| | | | 진로탐색의도 | .225*** | .000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86** | .001 |
| | | | 진로탐색의도 | .243*** | .000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413*** | .000 |
| 모형 3 | 부모진로지지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93*** | .000 |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77** | .004 |
| | 외향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93*** | .000 |
| | | | 진로탐색의도 | .348*** | .000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79** | .002 |
| | | | 진로탐색의도 | .243*** | .000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386*** | .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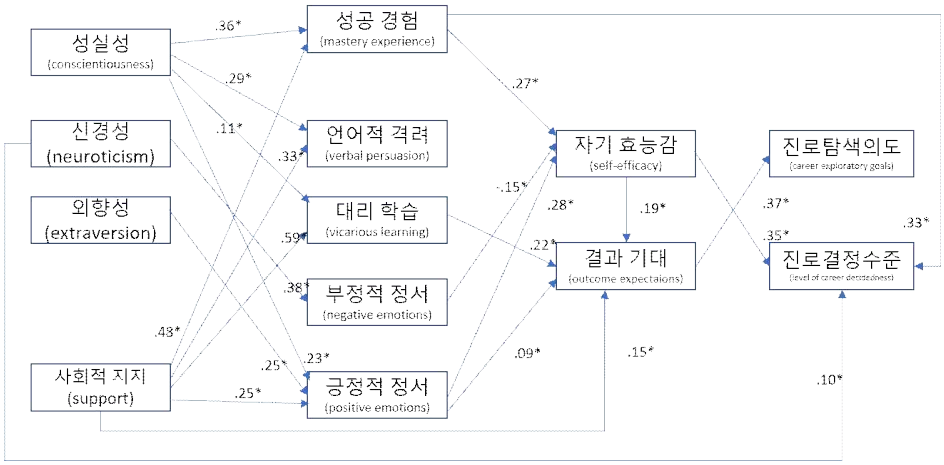
〈표 Ⅱ-9〉 전미리(2017)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 경로 | | | | B | 95%CI | |
|---|---|---|---|---|---|---|
| 모형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 하한 | 상한 |
| 모형 1 |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탐색의도 | 0.120*** | 0.057 | 0.227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129** | 0.035 | 0.269 |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34** | 0.013 | 0.070 |
| | 성실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0.191*** | 0.110 | 0.301 |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53*** | 0.017 | 0.115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132** | 0.045 | 0.246 |
| 모형 2 |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탐색의도 | 0.126*** | 0.058 | 0.230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128** | 0.033 | 0.262 |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40** | 0.015 | 0.084 |
| | 개방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0.184*** | 0.098 | 0.308 |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58** | 0.017 | 0.113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134** | 0.045 | 0.246 |
| 모형 3 |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탐색의도 | 0.125*** | 0.063 | 0.219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119** | 0.032 | 0.247 |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35** | 0.012 | 0.079 |
| | 외향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0.074*** | 0.035 | 0.138 |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21** | 0.005 | 0.050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118** | 0.032 | 0.223 |

### 5) Ireland & Lent(2018)의 연구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 수정된 진로자기관리모형이 제시되었는데, Lent et al.(2017)이 개발한 진로학습경험과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고 결정적 결과 변수로서 진로탐색의도와 진로결정수준을 설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격요인이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성격이 진로학습경험을 통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도출하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진로학습경험의 5가지 하위 요인을 각각 하나의 변인으로 파악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하위 요인과 다른 변인과의 개별적인 경로를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학습경험의 요인구조를 4요인 모형과 5요인 모형으로 구분하여 검증함으로써 요인구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Ⅱ-7] Ireland & Lent(2018)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연구

자료 : Ireland. & Lent. (2018).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earning experiences: A test of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37-47.

연구의 결과, 진로학습경험의 4 요인 구조와 5요인 구조 중에서 5요인 구조가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언어적 격려와 성공경험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된 문항을 개발하였으나 큰 개선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가 진로결정수준의 주요 영향요인인 것이 검증되었으며, 진로학습경험의 주요 예측자로서 사회적 지지가 검증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대리학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연구와 달리, 해당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의 더 효과적인 예측 변인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성공 경험 및 신경증 각각의 변인과 진로결정수준의 직접적인 경로가 검증되었다.

〈표 Ⅱ-10〉 Ireland & Lent(2018) 연구 결과 직접경로 종합

| 경로 | | | β | p |
|---|---|---|---|---|
| 성실성 | → | 성공 경험 | .36* | <.05 |
| | | 언어적 격려 | .29* | <.05 |
| | | 대리학습 | .11* | <.05 |
| | | 긍정 정서 각성 | .23* | <.05 |
| 신경증 | → | 부정 정서 각성 | .38* | <.05 |
| | | 진로결정도 | .10* | <.05 |
| 외향성 | → | 긍정 정서 각성 | .25* | <.05 |
| 사회적지지 | → | 성공경험 | .29* | <.05 |
| | | 언어적 격려 | .33* | <.05 |
| | | 대리 학습 | .59* | <.05 |
| | | 긍정 정서 각성 | .25*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5* | <.05 |
| 성공 경험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7* | <.05 |
| | | 진로결정도 | .33* | <.05 |
| 대리 학습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22* | <.05 |
| 부정정서각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5* | <.05 |
| 긍정정서각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8* | <.05 |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9* | <.05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19* | <.05 |
| | | 진로결정도 | .35* | <.05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37* | <.05 |

〈표 Ⅱ-11〉 Ireland & Lent(2018) 연구 결과 간접경로 종합

| 경로 | | | β | S.E. | 95%CI | |
|---|---|---|---|---|---|---|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 | 하한 | 상한 |
| 성실성 | 성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진로탐색의도 | 0.007 | 0.004 | 0.003 | 0.022 |
| | 긍정정서각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05 | 0.003 | 0.003 | 0.014 |
| | 대리학습→진로결정결과기대 | | 0.009 | 0.013 | 0.006 | 0.014 |
| 신경증 | 부정정서각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04 | 0.002 | -0.011 | -0.002 |
| 외향성 | 긍정정서각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05 | 0.003 | 0.002 | 0.014 |
|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055 | 0.032 | 0.020 | 0.147 |
| | 대리학습→진로결정결과기대 | | 0.047 | 0.022 | 0.029 | 0.117 |
| | 성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5 | 0.003 | 0.003 | 0.017 |

| | | | | | | |
|---|---|---|---|---|---|---|
| | 긍정정서각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05 | 0.003 | 0.003 | 0.015 |
| 성공경험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19 | 0.010 | 0.009 | 0.051 |
| 대리학습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80 | 0.035 | 0.046 | 0.186 |
| 부정정서각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11 | 0.005 | -0.024 | -0.004 |
| 긍정정서각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 | | .020 | 0.010 | 0.010 | 0.050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결과기대 | | 0.071 | 0.032 | 0.041 | 0.171 |

주 : 종속변인이 진로결정도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로 설정된 간접효과 결과는 생략하였음.

## 3. 성격,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

### 가.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 1)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의 개념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기 이전, 성격이론의 발달 및 성격 5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격이론은 인간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정과 접근방식에 따라 정신분석학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현상학적 이론, 특성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특성이론에서는 인간의 내부에 항상적이고 일관적인 기본 틀이 있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성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성격특성 이론가인 Allport, Cattel, Guildford 등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격 특성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Allport & Odbert(1936)는 Webster 영어대사전에서 성격을 나타내는 18,000개의 단어를 분류하여 성격특성을 범주화하였으며, Cattell(1943)은 Allport & Odbert(1936)의 연구를 발전시켜 35개의 성격범주를 추출하였고 이를 다시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성격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Goldberg(1981)은 성격과 관련된 선행 요인을 종합하여 이들을 최초로 성격 5요인(Big Five)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이루

어진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인간 내부에 보편적인 성격 특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성격이 성격 5요인(Big Five)에서 정의하는 5개의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 성실성의 개념

성격 5요인 중의 하나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개인의 조직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물리적인 환경 및 실체에 대한 조직화 뿐 아니라 개인 내면의 정신적인 조직화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기 물건이나 자리를 잘 정리 정돈을 잘 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 또한 성실성에는 자신의 충동에 대한 조절 능력, 예컨대 욕구에 대한 충족을 지연하기, 규범 및 규칙 준수하기 등과 같은 조절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John, Naumann, & Soto, 2008). 따라서 성격 5요인의 정의에 따르면 성실한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성취를 단기적인 쾌락보다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성실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질서, 의무 준수, 성취 노력, 자기훈련, 조심성(Costa & McCrae, 1992)의 6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고, 질서를 추구하며, 의무를 준수하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하며 그를 위하여 자기를 훈련하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반대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 한편, 성실성의 하위요인들이 대체로 매우 긍정적인 특성이므로 성실성이 높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성실할수록 괴팍스럽거나 강박적인 정돈 및 일중독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osta & McCrae, 1985). 따라서 성실성을 늘 긍정적인 성격요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외향성의 개념

성격 5요인 중 하나인 외향성(Extraversion)은 내향성의 반대 성향으로 파악되는데, 개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상에 개입하는지 혹은 개인이 얼마나 격정

적인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이고, 말이 많고, 쾌활하며 모임을 좋아하고 흥분을 즐기는 특징이 있다(Coasta & McCrae, 1992).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관심을 얻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의 폭도 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외향성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따듯함(친절성),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흥분 추구, 긍정적 정서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된다(Costa & McCrae, 1992). 이는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따뜻하고(친절하며), 사교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흥분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이 높다는 것이 꼭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불안과 우울은 성격 5요인 중 하나인 신경증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한다. 외향성의 하위 요인으로 긍정적인 정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향성과 불안 및 우울은 다소 상반되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불안과 우울을 수반하는 신경증은 외향성과 항상 반비례 관계인 것은 아니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 안으로 집중하기보다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정서를 잘 조절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불안 및 우울과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개방성의 개념

성격 5요인 중 하나인 개방성(Openness)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구적인 지성' 이라고 할 수 있다(Digman, 1996; Fiske, 1949). 개방성은 자극에 대한 추구,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관습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개방성의 특징을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심미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방성인 사람일수록 심미적 경험을 할 때 전율을 느낀다(McCrae, 2007).

개방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공상(상상), 심미성(예술적 취향), 감성(정서

성), 행위(모험), 아이디어(지성), 가치의 6가지로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방성을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은 심미성인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창의적인 직업을 갖는 경향이 높고, 독특한 일을 하고 가정환경도 독특하게 꾸미는 편이다(John et al., 2008). 즉, 개방적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개방적일수록 정신적인 삶의 가치를 음미하고 즐기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인 지능 및 능력과 다르다. 예컨대 예술적인 능력이 없지만 예술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개방성이 외향성과 다른 점은 외향성은 대인 관계에서의 흥분 및 관심을 추구하는 반면 개방성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개방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가치가 반드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개방성과 외향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의 측정

성격 5요인의 측정도구로는 대표적으로 NEO-PI-R(McCrae & Costa, 1992) 및 Goldberg(2001)가 있다. 첫 번째로 NEO-PI-R의 경우, NEO-PI(McCrae & Costa, 1985)를 개정한 성격검사로서, 성격 특성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도구는 성격 5요인에 해당하는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및 신경증 5개 영역을 측정한다. 각 성격 요인은 6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하위요인은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종합하면 하나의 성격요인당 48개의 문항이 존재하고 전체 240개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하지 않음(Stronly Disagree : 1)에서 매우 동의함(Stronly Agree: 5)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각 성격요인에 대한 측정점수는 각 성격요인을 구성하는 6개의 하위요인을 점수들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NEO-PI-R의 경우, 종합적으로 성격 5요인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항수가 240개로 매우 많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60개 문항의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NEO-FFI(Five-Factor Inventory)라고 명명되었다(McCrae & Costa, 2004). 이후에 NEO-FFI는 NEO-PI(중고생 및 대학생용)으로 개정(McCrae, Costa, &

Martin, 2005)되었으나 여전히 문항이 많아 사용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측정도구인 IPIP(International Persoanlity Item Pool)의 경우, Goldberg(1999)가 개발한 것으로, NEO-PI 등 기개발된 성격5요인 측정도구가 문항의 수가 많고 저작권 등의 문제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개발한 척도이다. 이후 Goldberg는 영어 및 한글을 포함한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안한 IPIP척도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PIP는 각 성격요인별로 10문항 혹은 2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NEO-PI-R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문항의 수(50개 문항/100 문항)로 인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각 성격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의 평균값으로 각 성격요인의 점수를 계산하여 활용된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대표적인 성격요인 측정도구 NEO-PI-R 및 IPIP는 각각 장점이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NEO-PI-R의 경우 저작권 문제 및 매우 긴 문항의 수로 인하여 연구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IPIP를 택하여 활용하였다.

## 나. 부모진로지지

### 1) 부모진로지지의 개념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환경 맥락적 변인을 지지 및 장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지지와 관련해서는 지지원에 따라 사회인지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한국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성하은, 2014; 이미진, 2012).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태환, 2013; 최수정, 2007). 이러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가족들의 영향력을 실제로 입증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타 문화권에 비하여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

서 진로 선택 및 발달이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와의 상호의존성을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규범으로 여긴다는 점(선혜연, 김계현, 2007; 최인재, 2006)을 고려할 때,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진로 발달에 대한 연구는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수임, 김창대, 2009; 선혜연, 김계현, 2007). 대학생 시기 이전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자녀의 심리적 독립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에서 필요한 인지적 및 행동적 요인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김수임, 김창대, 2009; 선혜연, 김계현, 2007; 임수진, 2015). 따라서 기본적으로 진로 발달에 관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인 독립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일반적인 변인에 대한 탐구 보다는 영역 특수적인(domain-specific) 변인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있으며(Lent & Brown, 2006), 선행연구에서도 진로 상담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주기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변인을 설정하여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선혜연, 2008) 보다 구체적인 변인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전미리,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 맥락적 변인 중 중요한 지지원으로서 부모진로지지를 설정하여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부모진로지지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자녀의 진로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모진로지지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상이하다. 박지원(1985)의 경우, 부모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활용하면서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정서적 지지란 사랑과 이해, 격려 및 칭찬 등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부모의 지지적 행동을 의미하고, 평가적 지지란 칭찬, 소질인정, 가치 고양 등 자녀의 행동 및 결정을 지지해주는 언어적 및 행동적 인정을 의미한다. 정보적 지지란 필요한 충고, 조언, 지도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하

며, 물질적 지지란 진로 탐색 및 결정에서 필요한 물질적 필요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이며 실제적인 도움 및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상희(2009)에 따르면 부모 진로지지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 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정보적지지는 개인이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있어서 수월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주는 지지를 의미하고 대화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지지를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란 자녀가 진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였을 때 이를 잘 배려해주고 개인의 진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주는 지지를 의미하고, 경제적 지지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업 및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부모님이 제공하여 주는 지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지지란 자녀의 진로 선택을 위하여 부모님이 자신이자 자신의 직장 동료를 통한 진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위요인들은 일부 박지원(1985)과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대화적지지, 경험적지지 등 기존에는 없는 요인이거나 독립적인 요인으로 별도 구성된 요인들도 있었다. 이러한 하위요인을 종합하면, 이상희(2009)는 자녀의 진로발달 영역에서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지의 정도를 부모진로지지로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부모진로지지의 측정

위에서 언급한 부모진로지지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크게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척도 및 이상희(2009)의 부모진로지지 척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지원(1985)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척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4가지 요인(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을 측정하는데 각 하위 요인당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

상 그렇다: 5점’ 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측정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전체의 총합 혹은 평균을 계산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희(2009)의 부모진로지지 척도는 5가지 하위요인(정서적지지, 대화적지지, 정보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당 4개의 문항으로 응답자들에게 설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상희(2009)의 척도에서는 응답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체의 총합 또는 평균을 계산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상으로 정리한 두 가지 부모진로지지 척도를 비교해봤을 때,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한 요인 당 비교적 많은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이상희(2009)에서 측정하고 있는 대화적지지 및 경험적 지지가 박지원(1985)의 척도에서 평가적 지지로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지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상희(2009)의 부모진로지지 척도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희(2009)의 부모진로지지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다. 진로학습경험

#### 1) 진로학습경험의 개념

학습경험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도구의 미비로 인하여 연구에서 실제로 검증되거나 다루어진 적이 드물었다. 진로학습경험이란 학습경험의 일종으로써, 일반적인 개념인 학습경험을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적용하면서 형성된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인 개념이다. 즉, 진로학습경험이란 후술하게 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육성하는 기제이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축적되어온 진로 탐색 및 결정에서 필요로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학습경험의 하위 구인인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 및 부정 정서 각성은 본래 성과 달성, 사회적 설득, 대리학습, 정서적 각성 4가지 구인에서 심화 발전된 것이다. 우선 기존의 하위 구인이였던 성과 달성, 사회적 설득, 대리학습, 정서적 각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과 달성(Performance accomplishments)은 특정 영역과 관련된(domina-relevant), 도전적 과제를 성공하는 것을 수반한다(Betz, 2007; Bike, 2013에서 재인용). 개인은 과거에 특정 영역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한 경험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동일한 영역의 비슷한 과제를 성공할 것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인지적인 처리 과정은 그 경험에 관련되어, 그리고 그 경험의 결과 미래의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어떤 유형(what type)의 결론을 어느 정도(how much)를 내리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한 결과로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석한다면,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보다 훨씬 더 시험 보는 것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다. 즉, 학습 경험은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와 다르다는 것이며, 경험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개인의 인지적인 과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Bike, 2013).

Bandura에 의하면, 대리 학습(Vicarious learning)은 과제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관찰하거나 과제를 잘 수행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강화를 얻는 사람을 관찰할 때 발생한다(Bandura, 1986). Bike에 의하면, 학생들은 진로 워크숍, 수업 혹은 상담 그룹에서 특정 영역에 관련되어 있으나 유사하지는 않은 과제를 완수한 사람들을 통해 대리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진로 수업과 워크숍은 학생들이 흥미가 있는 영역의 졸업생들과의 인터뷰, 잡 셰도잉, 자원봉사, 인터쉽 기회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학습 기회를 포괄한다고 보았다(Bike, 2013). 연구자들은 구성주의에 집중된 진로 수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82명의 참가자들에게 성취 경험과 대리 학습 경험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구두 발표(oral presentation)인 것을 발견했다(Grier-Reed & Ganuza, 2011; Grier-Reed & Skaar, 2010; Bike, 2013에서 재인용).

사회적 설득(Socai persuasion)은 신뢰받으며 존경받는 타인이 개인이 흥미가 있는 영역에 유능하다고 말로써 알려주는 것의 효과를 의미한다. 인정받는

사람에게 사회적 설득을 얻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eller & Whiston(2008)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설득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주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eller & Whiston, 2008; Bike, 2013 재인용)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해왔다. Bandura에 의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큰 영향을 준다(Bandura, 1986; Bike, 2013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뿐 아니라 긍정적 정서도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으므로, Bike의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각성과 긍정 정서 각성으로 구분하여 학습 경험 척도를 개발하였다(Bike, 2013).

종합하여 살펴보자면, 학습 경험은 크게 성과 달성, 대리 학습, 사회적 설득, 정서적 각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ike(2013)의 연구 등에서 다소 개념의 명칭과 분류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즉, 성과 달성을 보다 내용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성공 경험(mastery experience)으로, 사회적 설득은 언어적 격려(Verbal Persuasion)로 변경하였고, 정서적 각성은 부정 정서 각성과 긍정 정서 각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학습경험의 하위구인을 토대로 진로학습경험의 개념 및 하위구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진로학습경험이란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경험하였던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과거에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을수록(성공 경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들었던 경험이 많을수록(언어적 격려), 자신의 주변에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롤 모델이 많을수록(대리 학습), 그동안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을 겪으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했을수록(긍정 정서 각성), 부정적인 정서는 덜 경험했을수록(부정 정서 각성) 진로학습경험은 많다고 할 수 있다.

### 2) 진로학습경험의 측정

학습경험의 측정도구는 그동안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진로 학습경험 측정도구 역시 존재하지 않아 연구에서 활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대리적인 측정도구로서 각 과목별 성적 등과 같은 기존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거나(Brown & Lent, 1996; Matsui, Matsui, & Ohnishi, 1990), 과거나 현재의 학습경험에 대해 인식하는 바를 묻는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Schaub & Tokar, 2005; Schaub, 2004)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Ferry, Fouad, & Smith(2000)은 성적과 함께 교육연수를 학습경험의 대리지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ike(2013)의 연구에서 진로학습경험 척도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해당 연구에서 진로학습경험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Bike(2013)는 CDLE(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를 개발하면서 5개의 요인당 각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도록 개발하였다. 총 125개의 문항으로 개발된 CDLE는 최초의 진로학습경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문항의 수가 길어서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몇 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CDLE의 특정 문항은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의 학습경험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력서를 잘 준비해왔다”와 같은 문항이 존재했다. 또한, CDLE의 성공 경험의 대다수는 Crites(1978)의 계획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외 어떤 CDLE의 성공 경험 문항에서도 자기 평가, 목표 선택 및 문제 해결 역량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이론적으로 학습경험은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에 선행하여 형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각성에 대한 문항이 현재형으로 작성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Bike(2013)의 CDLE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Lent et al.(2017)은 진로 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하는데 보다 적절한 진로학습경험 척도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 CEDLE(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earning Experiences)가 개발되었다. CEDLE는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각 8문항과 긍정 및 부정 정서 각성 각 5문항으로 개발되어 총 34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CEDLE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Lent et al.(2017) 및

Ireland & Lent(2018) 연구 모두에서 CEDLE은 4요인 모델로 분석되었다. 이는 언어적 격려 및 성공 경험의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두 연구 모두에서 4요인 모델과 5요인 모델을 함께 추가 검증한 결과 5요인 모델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Ireland & Lent(2018)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서 진로 탐색 및 결정의 성과가 객관적이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타인의 칭찬 및 인정을 통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 행동에 대한 성공 인식이 형성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Lent et al.(2017)에서는 CEDLE의 축약버전인 CEDLE-BF를 함께 개발하였는데 CEDLE-BF는 각 요인 당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개의 문항으로 진로학습경험을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자기관리모형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또한 문항의 수가 적절한 CEDLE-BF를 활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 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앞서 설명한 자기효능감의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인 개념으로서,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으로 자기효능감의 영역을 국한하여 적용한 결과 등장하게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에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 자체는 Betz & Hackett(1981)에 의하여 비교적 일찍 등장하였다. Betz & Hackett(1981)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진로발달에 국한된 자기효능감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김아영, 2004; Bandura, 1989; Shelton, 1990; Peterwon & Stunkard, 1992).

이후 Taylor & Betz(1983)은 Crites(1961)가 진로성숙의 하위구인으로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구인을 제시

한 것을 차용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념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Taylor &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구인은 Crites(1961)의 진로성숙의 하위구인 5개와 일치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진로결정을 위한 개인의 발달과업은 결국 진로 성숙이 높은 개인이 잘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김태환, 2013). 즉, Taylor & Betz(1983)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개인이 진로 발달 과업을 잘 할 것이라는 개인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바로 이것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고 보았다.

한편 Lent et al.(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1983)이 제기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과 다소 상이한 개념이다. 물론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신념(효능기대)라는 점에서는 두 연구가 상정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이 동일하나, 그 개념의 하위요인을 살펴볼 때 다소 상이한 면이 있다. Lent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일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탐색, 가능한 진로 경로 탐색, 자신의 능력과 진로 선택지와의 매칭, 진로 결정 및 수행, 결정 시의 장애물에 대한 대처 및 결정 이후 후회에 대한 대처” (Lent et al., 2016)를 잘 해낼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효능기대)라고 파악하고 있다. Lent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상정하면서, Taylor & Betz(1983)과는 달리 개인이 자아(Self)와 진로를 매칭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념을 정의내렸다. 이를 종합하면, Lent et al.(2016)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자아에 대한 이해 및 진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아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효능기대)이라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념은 진로 탐색 및 결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아와 진로의 매칭을 하위구인화 하였다는 점에서 진로자기관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최적화된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Lent et al.(2016)이 제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념을 기반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로는 CDMSES와 CEDSE가 있다. CDMSE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은 Taylor & Betz(1983)가 개발한 것으로서, 5개의 하위요인 당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총 50개의 문항에 응답자들이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매우 자신이 있음(Complete Confidence):9점' 에서 '전혀 자신 없음(No Confidence at all):0점' 으로 구성된 10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측정도구가 설계되었고, 문항의 총점 혹은 평균을 내어 전체 및 각 하위요인별 점수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Taylor & Betz(1983)은 매우 자신이 있음을 9점으로, 전혀 자신 없음 응답을 0점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측정도구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Taylor & Betz(1983)의 원 척도와는 달리 연구의 편의상 1점에서 10점 척도 혹은 1점에서 5점 척도로 응답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CDMSES가 다소 문항수가 많기에 응답자들이 쉽게 응답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이후 Betz et al.(1996)은 CDMSES를 절반으로 축소한(총 25개 문항)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개발하였다.

한편, CEDSE(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al Self-Efficacy)는 Lent et al.(2016)에 의하여 개발되었는데, 이 측정도구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아(Self)이해 및 진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이 둘을 매칭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또한 Lent et al.(2016)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 시, 연구자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아닌 전체 총점이라고 간주하였고 따라서 가능한 한 간결하고 단순한 요인구조를 가진 척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CEDSE 개발 시, 기반이 되는 이론적 근거로서 Parsons(1909)의 3단계 결정과정,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진로결정은 목표 설정 및 실행 단계로 세분화 될 수 있음), Bandura(1997)의 대처 효능감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9개의 문항을 산출하였다. 29개의 문항은 (a) 일과 관련하여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b) 가능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c) 자신의 자질과 진로를 매칭할 수 있는 능력, (d) 진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e)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과 결정 이후 찾아올 수 있는 후회에 대한 대처능력 이라는 5가지 하위요인에 각각 할당되었다. 이 5가지 하위구인은 CDSE-SF가 기반하고 있는 Crites(1978) 모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CDSE-SF는 미래 계획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반면, CEDSE는 자아의 특성과 진로를 매칭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CEDSE는 본래 '전혀 자신 없음(No confidence at al) : 0점' 에서 '매우 자신이 있음(Complete Confidence) : 9점' 의 10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고, 더 높은 점수 일수록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0점에서 9점 척도로 개발한 것은, Bandura가 초기에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을 시 0점-9점 척도로 개발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Lent et al.(2016)은 CEDSE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1차 및 2차 연구를 실시하는데, 1차 연구에서 본 29개의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EDSE는 5요인이 아닌 2요인 구조로 확인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결정적 자기효능감(decisional self-efficacy)' 로 명명되었으며 5가지 하위요인 중 대처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모두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결정적 대처 효능감(coping self-efficacy)' 로 명명되었으며, 결정 과정 혹은 이후의 장애물이나 실망감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을 포함한다. 결정적 자기효능감은 29개의 문항 중 24개의 문항을 포함하였고, 전체 분산의 63%를 설명하였으며 결정적 대처효능감은 4개의 문항을 포함하였고 전체 분산의 5%를 설명하였다.

Lent et al.(2016)은 CEDSE에 대한 2차 연구를 통하여 해당 요인구조를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있는데,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인에 가장 높게 부하된 12개의 문항(결정적 자기효능감 8문항 및 결정적 대처효능감 4문항)을 추출하여 CEDSE-BF(CEDSE-Brief Form)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두 개의 요인은 상호 높은 상관(.72)을 보였다. Lent et al.(2016)은

CEDSE 및 CEDSE-BF가 2요인의 단순한 요인 구조를 보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은 대학생들은 진로 이론가 및 상담가가 가정하는 만큼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자아와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진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반드시 분절적인(distinctive) 단계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진로 정보는 자신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즉석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행 중인 평가에 따라 고려하고 있는 진로(option)가 유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CEDSE에서 첫 번째 요인 및 두 번째 요인에 가장 높이 부하된 문항 중 일부가 자기 자신과 진로를 공동으로 고려하거나 매칭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Lent et al.(2016)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는 비교적 어린 청년층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해당 연구에서 결정적 대처 효능감 척도 4문항 중 3문항은 결정적 자기효능감 요인에도 높게 부하되었으며, 진로 자기관리 모형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진로 결정 불안 및 진로결정도 예측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Lent et al.(2016)은 진로 자기관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결정적 자기효능감에 해당되는 8문항만을 활용하였다. 진로 자기관리모형을 국내에서 검증한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도 결정적 자기효능감만을 활용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결정적 자기효능감에 해당되는 8문항만을 활용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 마. 진로결정결과기대

### 1)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개념

진로결정결과기대 개념 역시 결과기대 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진로 탐색 및 결정에 적용하면서 개발된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인 개념이다. 결과기대가 어떤 행동을 하였을 경우, 내가 얻을 수 있을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기에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잘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Betz & Voyten(1997)은 진로결정결

과기대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안의 하위 구인으로서 결정결과기대 및 학업결과기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결정결과기대는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잘 수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학업결과기대는 학업수행과 진로와의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한편, Lent et al(2003)은 공학관련 결과기대 개념을 제시하면서, 해당 개념을 특정 전공 분야(공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얻게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였는데, 이 개념의 하위구인은 내재적 결과기대 및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성된다. 내재적 결과기대는 특정 분야(공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개인 내적인 만족감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외재적 결과기대는 특정분야(공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개인 외적인 결과들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내재적 결과기대로는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외재적 결과기대로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이다' 등이 있다. 이후 Lent et al.(2013)은 해당 연구에서 기존의 공학결과기대 척도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MIQ)의 문항을 추가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 척도를 보다 타당하게 개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ent et al.(2013)의 정의를 따르되, 진로 탐색 및 결정 이라는 맥락에서 해당 정의를 적용하여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정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결과기대란 진로 탐색 및 결정을 능숙하게 한 경우, 얻을 수 있는 내적, 외적 결과에 대한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 2)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측정

진로결정결과기대(Career Decision-Making Outcome Expectation)의 대표적인 척도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Betz & Voyten(1997)의 결정결과기대 척도의 소척도인 진로결정결과기대 척도와 이를 개정한 Lent et al.(2017)의 진로결정결과기대 척도가 있다. Betz & Voyten(1997)의 진로결정결과기대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Lent et al.(2017)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4문항이 더 개발되었다. 따라서 해당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결과기대가 있음을 반영한다. 응답자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 에서 '매우 동의함:5점' 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척도가 구성되었다.

한편, Lent et al.(2013)이 개정한 공학관련 결정결과기대 척도가 있는데, 총 12개 문항으로 내재적 결과기대 및 외재적 결과기대를 각각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본래 진로 탐색 및 결정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나, 해당 척도가 여러 맥락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로결정결과기대 측정을 위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 맥락에 해당 척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응답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 에서 '매우 동의함:5점' 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척도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결과기대를 반영한다. 전체 문항의 합 혹은 평균을 계산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 바. 진로탐색의도

#### 1) 진로탐색의도의 개념

진로탐색의도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중요한 인지적 변인 중 하나인 '목표' 개념이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적용된 개념이다.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행동은 진로 탐색 및 결정 행동으로 명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할 목표는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 즉 진로탐색의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목표와 의도는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되는데, 이는 목표라는 개념 자체가 '행동' 을 염두에 두고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의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동일한 개념으로써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의 목표 역시 진로탐색의도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해당 개념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표 대

신 진로탐색의도라는 변인 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진로자기관리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국내 연구인 전미리(2017)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의도 대신 목표라는 용어를 변인 명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의도를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Betz & Voyten(1997) 및 Lent et al.(2016) 등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진로탐색의도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진로탐색의도의 정의를 받아들여, 진로탐색의도를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개념화하였다.

### 2) 진로탐색의도의 측정

진로탐색의도의 측정도구로는 Betz & Voyten(1997)이 개발한 탐색적 의도(Exploratory Intentions, Goals)가 있다. 해당 척도는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인 진로탐색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인 문항으로 “나는 진로에 관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계획이 있다”, “나는 진로 선택에 필요한 교육을 모두 받을 의도가 있다” 등이 있다. 응답자들은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측정도구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5개의 문항의 값의 총점 혹은 평균을 계산하여 연구에 활용하도록 구성되었다.

한편 해당 척도는 다소 문항의 수가 적다는 문제가 있어, 해당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Ireland & Lent(2018)는 5개의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추가되는 문항은 대표적으로 “나는 나의 흥미와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여러 진로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등이 있다. Ireland & Lent(2018)는 5개의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면서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특성과 진로의 특성을 매칭하고자 하는 진로 탐색 및 결정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중심으로 추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reland & Lent(2018)가 개발한 진로탐색의도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reland & Lent(2018)가 추가 개발한 5개의 문항은 번안이 필요하여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 4. 사회인지요인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간의 관계

####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관계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대한 최초의 검증을 시도한 Lent et al.(2016)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t et al.(2016)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새 측정도구인 CEDSE를 활용하여 진로자기관리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4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활용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인 CDSE-SF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을 때에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3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인 효능감이 높을수록, 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Bandura(1987)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로학습경험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포함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한 Lent et al.(2017)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39)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CEDSE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분산을 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19)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진로학습경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진로학습경험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포함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한 Lent et al.(2017)에서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일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ent et al.(2017)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의 5개 하위요인을 각각 별도의 변인으로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5개 하위요인 중 언어적 격려를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성공 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3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학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23,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정서 각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1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서 각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2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진로학습경험의 하위 5가지 요인에 상응하는 5가지 학습경험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분산을 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육성하는 기제(mechanism)로서 진로학습경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의 5개 하위 구인별로 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여 검증하였는데, 진로학습경험의 하위 구인 중 성공경험, 부정정서 각성 및 긍정 정서 각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7, p<.05)을 미쳤으며, 부정정서각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유

의한 영향($\beta$=−.15, p<.05)을 미쳤고 긍정정서각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8,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진로학습경험과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관계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진로학습경험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포함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한 Lent et al.(2017)에서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유의미하게 일부 예측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을 5가지 하위구인별로 5가지 변인을 구성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해당 모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진로 학습경험의 5가지 하위 구인 중 대리학습 및 부정정서 각성 2가지 하위 구인만이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대리학습이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5, p<.05)을 미쳤고, 부정 정서 각성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8, p<.05)을 미쳤다. 부정 정서 각성이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했을수록 진로결정결과기대가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의 5개 하위 구인별로 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여 검증하였는데, 진로학습의 하위 구인 중 대리학습 및 긍정정서각성이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유의미한 경로를 산출하였다. 대리학습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2, p<.05)을 미쳤으며, 긍정정서각성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진로자기관리모형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결과로서 진로결정불안,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 의도를 파악한 Lent et al.(2016)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결정결과기대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진로탐색의도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관계를 탐색한 Ireland & Lent(2018)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결과기대를 매개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확인되고 있다.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자기관리 모형을 검증한 Lent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학습경험 척도를 활용한 Lent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할 목표가 높아진다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가능한 논리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경로 또한 가정하였다.

### 2) 진로결정결과기대와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나, 실제 경험연구를 통하여 해당 가설이 검증된 바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대부분의 모형이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연구자들이 결과기대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경향(김영은, 2008)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탐색의도와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관계는 진로자기관리모형의 이론적 토대 및 이에 대한 일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Lent et al.(2017)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와 진로탐색의도는 정적인 상관(.46)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결과기대, 진로탐색의도 및 진로결정수준을 함께 연구한 Ireland & Lent(2018)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와 진로탐색의도는 정적인 상관(.37)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진로 계획을 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Ireland, 2017).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확인할 때(Lent et al., 2017; Ireland & Lent, 2018)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적응적 진로행동이 진로결정 시 얻게 될 수 있는 결과기대가 있을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는 경우보다 더 큰 유인가를 얻어 촉진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진로 상담 및 개입 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Ireland & Lent(2018)에서는 진로결정결과기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및 진로탐색의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경험적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나, 진로결정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진로탐색의도는 진로탐색 행동으로 이어지며 진로탐색행동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결과기대와 진로탐색의도 간의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Lent et al.(2016)에서 진로자기관리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2가지 연구 모두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t et al.(2016)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해당 연구에서 진행한 2가지 연구 모두에서 나타났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2개의 연구 중 하나의 연구에서만 나타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학습경험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포함한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검증한 Lent et al.(2017)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진로학습경험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학습 경험이란 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즉,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유사한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Bandura에 의하면, 효능감의 4가지 근원은 성과 달성, 대리 학습, 사회적 설득, 그리고 감정적 각성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Bike, 2013에서 재인용). Bike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각 4개의 자기효능감의 근원을 포함한 개입은 자기효

능감을 변화시킨다(Betz & Luzzo, 1996; Lent & Brown, 1996; Lent et al., 1994; Bike, 2013에서 재인용)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Lent et al.(2017) 연구에서, 진로학습경험의 하위구인별로 5가지 변인을 만들고 모형에 투입하여 진로자기관리 모형을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는 대부분의 진로학습경험 변인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적 격려로부터의 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모든 간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산출하지 못하였으며, 성공경험 및 긍정정서 각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가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5. 성격, 사회인지요인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가.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 1)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진로학습경험의 관계

진로자기관리 모형에 따르면 성실성 및 개방성은 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Ireland & Lent(2018)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근원인 진로학습경험을 모형에 투입하면서 성실성, 외향성 및 신경증이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Ireland & Lent(2018)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의 5개의 하위구인별로 변인을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여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은 성공경험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36, p<.05)을 미치고, 언어적 격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9, p<.05)을 미친다. 또한 성실성은 대리학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1, p<.05)을 미치며, 긍정 정서 각성($\beta$=.23, p<.05)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성실성과 부정정서 각성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Ireland & Lent(2018)에서 외향성과 진로학습경험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외향성은 긍정 정서 각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5, p<.05).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의 하위 구인으로 긍정적 정서가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eland & Lent(2018)에서는 외향성과 진로학습경험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때, 외향성과 긍정 정서 각성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Brown & Hirschi(2013)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덜 외향적인 사람들 보다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아 탐색 및 진로 탐색이 필요한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탐색을 좀 더 편안하게 추구할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Lent et al.(2013)에서 외향성이 진로 탐색 및 결정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 그런데 만약 외향성이 진로 탐색 및 결정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과거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진로 학습경험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덜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향성과 진로학습경험의 관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이러한 관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이 연구모형에서는 외향성과 진로학습경험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개방성 및 진로학습경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방성은 Lent et al.(2013)에 따라서 진로 탐색 및 결정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며, 진로학습경험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방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기존의 가치에 도전적, 혁신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전미리, 2017). 또한 새로운 경험을 도전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간주하며 모호한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Brown & Hirschi, 2013). 또한 개방성은 진로탐색(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및 정체감 탐색(Clancy & Dollinger, 1993)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방성의 특징에 따라서,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 2)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 자기관리모형에서 성실성은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목표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한 Lent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성실성 및 진로탐색의도의 직접적인 관계를 상정하여 검증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성실성의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특성이 성공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일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성실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경험적으로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성실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48, p<.05)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전미리(2017) 연구에서는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 각각의 성격요인과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결과기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342, p<.05)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따르면 외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193, p<.05)을 주었으며, 개방성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309, p<.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리(2017)에서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을 각각 비교하여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성실성, 개방성 및 외향성의 순서대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purk & Abele(2011)의 연구 및 Hartman & Betz(2007)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직업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 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Ireland & Lent(2018)에서 진로학습경험의 5가지 하위 구인을 구분하여 5가지 변인을 설정하여 진로자기관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해당 모형에서 성실성 및 외향성과 진로학습경험의 관계 뿐 아니라 성실성 및 외향성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간접효과도 검증하였다. 우선, 성실성의 경우 3가지의 간접경로가 확인되었는데, 첫 번째로 성실성-성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해당 경로의 경우, 성실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07,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실성-긍정정서각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경로에서 성실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0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실성-대리 학습-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경로에서 성실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9, p<.05).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이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및 긍정정서각성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진로탐색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성공 경험, 대리학습 및 긍정 정서 각성의 2개 학습경험 하위요인만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향성의 경우 외향성-긍정정서각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경로에서 외향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0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나, 개방성 및 진로학습경험의 관계(Lent et al., 2013; 전미리, 2017)와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관계(Lent et al., 2017)를 통하여 개방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

결정결과기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이 각각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가 매개한다고 가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 6.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가. 부모진로지지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관계

#### 1)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학습경험의 관계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진로학습경험의 5가지 하위 구인을 각각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모형에 투입한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및 긍정 정서각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성공경험과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9, p<.05)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와 언어적 격려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33, p<.05), 사회적 지지와 대리학습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59, p<.05)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긍정 정서 각성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진로학습경험 중 대리학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롤 모델이 생긴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한국적 맥락으로 변용하여 설정한 부모진로지지를 통하여 사회적지지와 진로학습경험의 관계를 탐구하려고 하며, 선행연구에 따라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학습경험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2)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로 자기관리모형에서 환경 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된다. 진로자기관리모형의 경험적 연구인 Lent et al.(2016)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진로 결정 불안, 진로 결정도(Decidedness),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고 모형이 설정되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진로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beta$=.21, p<.05)을 준다고 검증되었다.

또한 전미리(2017) 논문에서는 성실성,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성실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beta$=.34, p<.001)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개방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beta$=.31, p<.001)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에서 외향성,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외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beta$=.19, p<.001)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 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진로자기관리모형에서 경험적으로 많이 검증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의 관계는 간접적으로 검증되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총 4가지의 간접 경로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로 사회적지지-대리학습-진

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간접 경로가 검증되었으며, 해당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47,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사회적지지-성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간접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05, p<.05)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긍정정서각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05, p<.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진로학습 경험 중 부정정서각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하위구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적지지가 진로탐색에 미치는 간접 경로에서 언어적 격려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한국적 맥락으로 구체화한 부모진로지지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표 Ⅱ-12〉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근거 종합

| 구분 | 선행연구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결과기대 | Lent et al.(2016), Lent et al.(2017), Ireland & Lent(2018) |
| 진로학습경험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Lent et al.(2017), Ireland(2017), Ireland & Lent(2018) |
| 진로학습경험 → 진로결정결과기대 | Lent et al.(2017), Ireland(2017), Ireland & Lent(2018)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탐색의도 | Lent et al.(2016), Lent et al.(2017) |
| 진로결정결과기대 → 진로탐색의도 | Lent et al.(2017), Ireland(2017), Ireland & Lent(2018)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탐색의도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 Lent et al.(2016), Lent et al.(2017) |
| 진로학습경험 → 진로탐색의도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 Lent et al.(2017) |
|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 진로학습경험 | Ireland & Lent(2018) |
|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Lent et al.(2016), 전미리(2017) |
|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 진로탐색의도에서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 Lent et al.(2013), Lent et al.(2017), 전미리(2017), Ireland & Lent(2018) |
| 부모진로지지 → 진로학습경험 | 사회적지지- Ireland & Lent(2018) |
|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사회적지지- Lent et al.(2016), Ireland(2017)<br>부모진로지지- 전미리(2017) |
| 부모진로지지 → 진로탐색의도에서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 | 전미리(2017) |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인지진로이론 진로자기관리모형의 Ireland & Lent(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보완 및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Ⅲ-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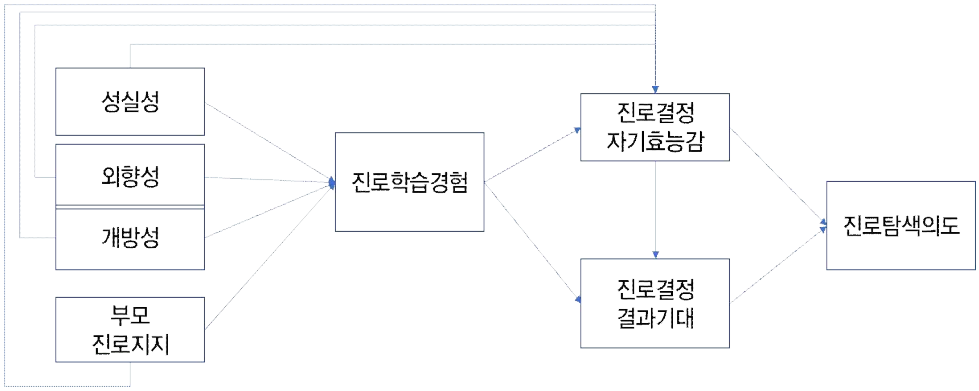
첫째, 성공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격려, 긍정 정서 각성, 부정 정서 각성의 5가지 학습경험의 세분화된 척도를 학습경험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재구성하여 연구모형에 활용하였다. 둘째, 성격 요인 중 신경증(정서안정성) 대신 개방성 요인을 투입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셋째, 사회적지지 변인을 한국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부모진로지지 변인으로 대체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의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직접 경로는 생략하였으며,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 각각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학생의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각각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Ⅲ-1]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 2. 연구대상

###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 조사된 4년제 일반대학의 총 재학생 수는 1,467,125명이고(한국교육개발원, 2018), 지역별로 학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전국적으로 대학 재학생 수는 1,467,125명이며, 이 중 수도권에 572,418명(39.0%), 비수도권에 894,707명(61.0%)으로 약 1:1.56의 비율을 보인다.

〈표 Ⅲ-1〉 4년제 대학의 지역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기준)

| 지역 | | 학생 수 | |
|---|---|---|---|
| | | 빈도(명) | 백분율(%)* |
| 수도권 | 서울 | 370,041 | 25.2 |
| | 인천 | 29,957 | 2.0 |
| | 경기 | 172,420 | 11.8 |
| 소계 | | 572,418 | 39.0 |
| 비수도권 | 부산 | 141,723 | 9.6 |
| | 광주 | 61,314 | 4.2 |
| | 대전 | 83,245 | 5.7 |
| | 울산 | 15,083 | 1.0 |
| | 세종 | 12,751 | 0.9 |
| | 대구 | 45,458 | 3.1 |
| | 강원 | 69,864 | 4.8 |
| | 충북 | 70,807 | 4.8 |
| | 충남 | 114,762 | 7.8 |
| | 전북 | 62,214 | 4.2 |
| | 전남 | 35,382 | 2.4 |
| | 경북 | 111,313 | 7.6 |
| | 경남 | 59,132 | 4.0 |
| | 제주 | 11,659 | 0.8 |
| 소계 | | 894,707 | 61.0 |
| 전체 | | 1,467,125 | 10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또한 대학교의 전공계열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이에 따르면 자연·이공계열 전공 재학생 수와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각각 549,720명, 578,425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재학생 수의 76,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자연·이공계열 재학생 수와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의 비율은 약 1:1.05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2〉 4년제 대학의 전공계열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기준)

| 지역 | | 학생 수 | | |
|---|---|---|---|---|
| | | 빈도(명) | | 백분율(%)* |
| 자연·이공계열 | 자연계열 | 172,571 | 549,720 | |
| | 공학계열 | 377,149 | | |
| 인문·사회계열 | 인문계열 | 180,368 | 578,425 | |
| | 사회계열 | 398.057 | | |
| 교육계열 | | 68,704 | | |
| 의약계열 | | 109,987 | | |
| 예체능계열 | | 160,289 | | |
| 합계 | | 1,467,125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대학교의 성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3>와 같다. 이에 따르면 남성 재학생수와 여성 재학생 수는 각각 명과 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재학생수와 여성 재학생 수의 비율은 약 1.04:1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3〉 4년제 대학의 전공계열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기준)

| 지역 | 학생 수 | |
|---|---|---|
| | 빈도(명) | 백분율(%)* |
| 남성 | 748,832 | 51.0 |
| 여성 | 718,293 | 49.0 |
| 합계 | 1,467,125 |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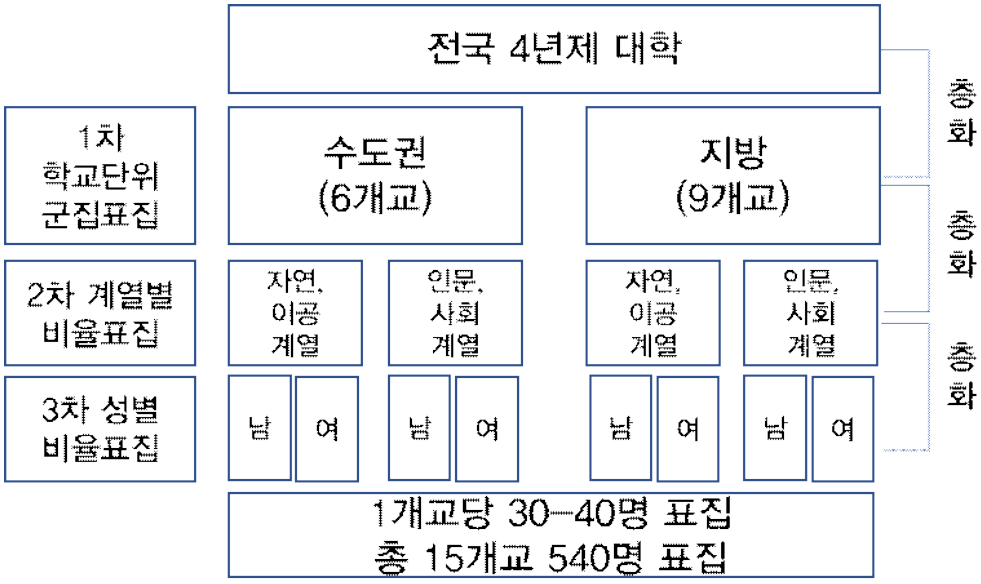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 나. 표집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로분석의 표본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300명 이상의 표본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최소 300명 이상인 경우, 신뢰할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이 연구에 따라(류근관, 2003) 300명이상을 표집 하도록 하되, 표본 추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률표집을 하였다. 특히 대학소재지(수도권, 지방), 전공 계열, 성별을 층화의 기준으로 삼아 층화표집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약 39%, 비수도권에 61% 존재하는 대학 재학생 모집단

의 특성에 따라서, 수도권 조사 학생의 비율을 약 40%, 비수도권 조사 학생의 비율을 약 60%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외에 전공계열, 성별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6개교, 지방 9개교를 선정한 후 1 학교 당 30-40명씩 표집 하여 총 600명을 목표로 표집 하였다. 또한 자연, 이공 계열과 인문, 사회계열의 비율을 1:1로 산정하여 1학교당 계열별 20명씩 표집 하도록 하였으며, 1 계열 당 남녀의 성비를 1:1로 산정하여 계열별 남성 및 여성을 각각 10명씩 표집 하였다.




[그림 Ⅲ-2] 층화군집비율표집 과정

## 3. 측정 도구

이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진로탐색의도,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로 구성하였고, 리커트(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측정도구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측정도구(설문지) 구성

| 구분 | | 문항 수 | | 문항 번호 | 척도 | 출처 |
|---|---|---|---|---|---|---|
| 진로탐색의도 | | 10 | | Ⅰ-① - ⑩ | 5점 척도 | Lent et al.(2017) |
| 성실성 | | 10 | | Ⅱ-①,④,⑦,⑩,⑬, ⑯,⑲*,㉒*,㉕*,㉘* | | Goldberg(1999),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2004) 번안 |
| 외향성 | | 10 | | Ⅱ-②,⑤,⑧,⑪,⑭, ⑰*,⑳*,㉓*,㉖*,㉙* | | |
| 개방성 | | 10 | | Ⅱ-③,⑥,⑨,⑫,⑮, ⑱,㉑,㉔*,㉗*,㉚* | | |
| 부모 진로 지지 | 정보적 지지 | 4 | 20 | Ⅲ-⑪, ⑬, ⑯, ⑲ | | 이상희(2009) |
| | 대화적 지지 | 4 | | Ⅲ-①, ④, ⑩, ⑭ | | |
| | 정서적 지지 | 4 | | Ⅲ-⑤, ⑧, ⑮, ⑱ | | |
| | 경제적 지지 | 4 | | Ⅲ-③, ⑥, ⑦, ⑳ | | |
| | 경험적 지지 | 4 | | Ⅲ-②, ⑨, ⑫, ⑰ | | |
| 진로 학습 경험 | 성공 경험 | 4 | 20 | Ⅳ-① - ④ | | Lent et al.(2017) |
| | 언어적 격려 | 4 | | Ⅳ-⑤ - ⑧ | | |
| | 대리학습 | 4 | | Ⅳ-⑨ - ⑫ | | |
| | 긍정정서각성 | 4 | | Ⅳ-⑮,⑯,⑱,⑳ | | |
| | 부정정서각성 | 4 | | Ⅳ-⑬*,⑭*,⑰*,⑲* |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8 | | Ⅴ-① - ⑧ | | Lent et al.(2016), 전미리(2017) 번안 |
| 진로 결정 결과 기대 | 내재적 결과기대 | 12 | | Ⅵ-① - ⑦ | | Lent et al.(2013) 김진관(2014) 번안 |
| | 외재적 결과기대 | | | Ⅵ-⑧ - ⑫ | | |
| 인구 통계 학적 특성 | 성별, 연령, 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학년 등 | 8 | | Ⅶ-①~⑧ | - | |
| 합계 | | 108 | | | | |

* 역 채점 문항

진로탐색의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은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진로지지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학습경험은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정결과기대는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및 학년 등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탐색의도(새롭게 개발된 5문항) 및 진로학습경험 측정도구의 경우, 도구의 원 개발자인 R. W. Lent에게 도구를 요청하고 한국어 번안을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번안을 진행하였다. 이후 번안한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교육학 박사과정 2명에게 번안이 명확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되었는지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인타당도 검증도 실시하였는데,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탐색의도는 구인타당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생략하였으나 진로학습경험은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탐색의도(원 5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척도의 경우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문항에 관하여 교육학 박사 1명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외 척도에 관하여서도 교육학 박사 1명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모든 문항이 신뢰롭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 가. 진로탐색의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탐색의도는 본래 Betz & Voyten(1997)이 개발하였으며, Lent et al.(2017)에서 추가 보완하여 개정한 척도를 의미한다. Betz & Voyten(1997)의 원 척도는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5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Lent et al.(2017)에서는 원래 척도의 5문항 외에 진로탐색의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진로탐색의도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ent et al.(2017)이 사용한 10개 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되, Betz & Voyten(1997)의 원래 5개 문항에 대해서는 양난미(2006)가 번안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Lent et al.(2017)에서 추가로 개발한 5개 문항에 대해서는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Lent et al.(2017)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Betz & Voyten(1997)의 원 척도를 양난미(2006)가 번안한 5개 문항은 보

다 가독성이 높으며 응답하기 쉽도록 개정하였다. 문항 1 ‘나는 진로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용의가 있다’ 에서 ‘~하려고 한다.’ 로 어미를 수정하였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따라서 ‘나는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2 ‘나는 진로에 관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계획이 있다’ 에서 ‘~하려고 한다’ 로 어미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나는 진로에 관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한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3 ‘나는 내가 가진 능력과 흥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서 이후 약 2달간의 응답자의 진로탐색 ‘의도’ 를 파악하고자 하는 측정문항의 목적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형의 어미를 미래형으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나는 내가 가진 능력과 흥미가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4 ‘나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을 용의가 있다.’ 에서 ‘~하려고 한다.’ 로 어미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나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교육을 모두 받으려고 한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5 ‘나는 다른 전공의 진로선택 가능성에 대해 우리 대학의 선배(조언자)나 상담자와 이야기할 계획이 있다.’ 에서 ‘~하려고 한다.’ 로 어미를 수정하였고, 문장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진로선택 가능성’ 을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 로 의역하였다. 그 결과 ‘나는 다른 전공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대학의 선배나 조언자들과 이야기하려고 한다.’ 로 수정하였다.

Lent et al.(2017)에서 추가로 개발한 5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번안하여 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해당 내용은 부록1 및 부록2에 제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833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는 .871로 나타났다.

〈표 Ⅲ-5〉 진로탐색의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진로탐색의도 | .833 | .871 |

## 나. 성실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성실성 측정도구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요인 척도(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의 하위요인 중 성실성 척도이다. 성격요인척도(IPIP)는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2004)가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 하였으며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정서안정성, 개방성의 5개 요인이 각 10개 문항씩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성실성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요인의 특징이 뚜렷함을 의미하며,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 IPIP의 성실성 척도는 .7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792로 나타났다.

〈표 Ⅲ-6〉 성실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성실성 | .802 | .792 |

## 다. 외향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외향성 측정도구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요인 척도(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 척도이다. 성격요인척도(IPIP)는 유태용 외(2004)가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외향성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요인의 특징이 뚜렷함을 의미하며,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 IPIP의 외향성 척도는 .8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904로 나타났다.

〈표 Ⅲ-7〉 외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외향성 | .895 | .904 |

### 라. 개방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개방성 측정도구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요인 척도(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 척도이다. 성격요인척도(IPIP)는 유태용 외(2004)가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개방성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요인의 특징이 뚜렷함을 의미하며,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 IPIP의 개방성 척도는 .8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768로 나타났다.

〈표 Ⅲ-8〉 외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개방성 | .771 | .768 |

### 마. 부모진로지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진로지지 척도는 이상희(2009)의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다. 해당 척도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 지지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미리, 2017), 각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미리(2017)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925로 나타났다.

〈표 Ⅲ-9〉 부모진로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부모진로지지 | | .949 | .925 |
| | 정보적 지지 | .880 | .837 |
| | 대화적 지지 | .928 | .895 |
| | 정서적 지지 | .898 | .855 |
| | 경제적 지지 | .861 | .786 |
| | 경험적 지지 | .884 | .819 |

### 바. 진로학습경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학습경험척도는 진로학습경험-축소버전(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earning Experience-Brief Measure, CEDLE-BF)을 의미한다. CEDLE 및 CEDLE-BF는 Lent et al.(2017)이 최초로 진로 탐색 및 결정 분야에 학습경험 척도를 도입하면서 개발한 척도들로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CEDLE-BF는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후 사용하였다. 1차로 연구자가 번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해당 내용은 부록1 및 부록2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CEDLE-BF는 20개의 문항으로 학습 경험을 측정한다. 20개의 문항은 성공경험 4문항, 대리학습 4문항, 언어적 격려 4문항, 긍정정서각성 4문항, 부정정서각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EDLE 및 CEDLE-BF를 활용한 Lent et al.(2017), Ireland(2017), Ireland & Lent(2018) 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을 각각의 하위구인별로 별도의 변인으로 쪼개어 구성하여 총 5개의 변인으로 연구에 투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학습경험을 각 하위구인별로 구분하여 변인을 설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연구에 투입하였다. 진로학습경험 변인 구성 시, 부정정서각성을 역채점하여 계산한 후 5개 하위요인에 대한 20개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이 평균값을 진로학습경험에 대한 측정값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최대한 측정 문항은 원 문항 그대로 사용하되, 공통된 하위구인에 대한 문항은 한꺼번에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의 순서를 재조정하였으며 하위구인별로 각 하위구인에 알맞은 문항 안내 글(instruction)을 제시하고 각 하위구인에 알맞은 문두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응답자가 응답하기 쉽도록 측정도구를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직업경로(career path)' 등 필요한 용어에 관해서는 용어의 정의 및 해설을 추가로 제시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Ireland & Lent(2018)에서 진로학습경험의 신뢰도는 성공 경험(.83), 언어적 격려(.88), 대리학습(.83), 긍정정서각성(.83)과 부정정서각성(.81)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895로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 신뢰

도는 .871로 나타났다.

〈표 Ⅲ-10〉 진로학습경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진로학습경험 | | .895 | .871 |
| | 성공 경험 | .865 | .846 |
| | 언어적 격려 | .883 | .874 |
| | 대리학습 | .903 | .855 |
| | 긍정정서각성 | .745 | .702 |
| | 부정정서각성 | .906 | .862 |

## 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Lent et al.(2016)이 개발한 진로 탐색 및 결정 자기효능감(CEDSE,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al Self-Efficacy)의 소척도인 결정자기효능감(Decisional Self-Efficacy)을 의미한다. Lent et al.(2016)는 8문항의 결정자기효능감(Decisional Self-Efficacy)과 4문항의 결정대처자기효능감(Decisional Coping Self-Efficacy)으로 CEDSE를 개발하여 검증하였는데, 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며, 결정대처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과 결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관리하거나 현재 추구하는 진로 선택지 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측정한다. 하지만 동일한 연구에서 CEDSE에 대한 검증 결과 대처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 탐색을 예측하는 것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Lent et al.(2016)은 결정효능감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축약 척도(CEDSE-BD)를 구성하였다.

해당 척도는 전미리(2017)에서 번안, 타당화 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번안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처음 주장한 Bandura의 의견을 따라 Lent et al.(2016)이 0점-9점 혹은 0점-4점

의 리커트 척도로 개발하였으나, Lent와의 서신 교환에서 1점-10점 및 1점-5점 척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0점-4점 척도를 1점-5점 척도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예비조사 실시에 앞서 전미리(2017)가 번안한 측정 문항 중 1문항을 수정한 후 내용 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 6 '내가 원하는 진로의 경로를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다.' 의 경우, 'career path' 를 의미하는 우리말 용어로서 '진로의 경로' 보다 '직업경로' 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용어를 수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업경로의 정의를 문항 옆에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Lent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가 .87로 나타났으며,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917이었으며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916이었다.

〈표 Ⅲ-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917 | .916 |

### 아. 진로결정결과기대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결과기대는 Lent et al.(2013)이 개발한 결과기대를 진로 탐색 및 결정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의미한다. Lent et al.(2013)은 공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척도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가 외재적 및 내재적 결과기대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척도이므로 진로 탐색 및 결정 상황에서도 해당 결과기대 측정 문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 상황에 맞게 해당 척도를 수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Lent et al.(2013)이 개발한 결과기대 척도는 김진관(2014)이 번안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김진관(2014)이 번안한 문항을 활용하되, '현재의 전공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하면’ 이라는 측정문항의 문두를 ‘내가 나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알게 되어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면’ 으로 수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대한 결과기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당 도구를 수정하였다. 또한, 김진관(2014)이 번안한 문항 중에서 응답자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 1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의 경우,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2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의 경우,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3 ‘나에게 적합한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의 경우, ‘그 직업분야에 관련된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할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4 ‘나의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의 경우, ‘나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일을 할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5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의 경우,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6 ‘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것이다’ 의 경우, ‘일을 하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7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의 경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8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 받을 것이다.’ 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9 ‘괜찮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의 경우,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을 할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10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을 할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문항 11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의 경우,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로 수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결과기대 7문항과 외적 결과기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는 .888로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 신뢰도는 .870로 나타났다.

〈표 Ⅲ-12〉 진로결정결과기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 |
|---|---|---|---|
| | | 예비조사(126) | 본조사(529)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888 | .870 |
| | 내적 결과기대 | .907 | .888 |
| | 외적 결과기대 | .816 | .780 |

## 4. 자료 수집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본 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의 경우, 온라인(PC,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울 시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1-2명의 조사협력자를 통하여 URL을 전달하여 설문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조사는 우편조사 및 온라인(PC, 모바일)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학교별로 1-2명의 조사 협력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40명을 표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분석에서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하여 총 529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R 3.6.1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연구 가설별 통계기법

| 구분 | 통계 기법 |
|---|---|
| 자료의 일반적 특성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
| 가설 1.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주어진 경험적 자료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 경로분석 |
| 가설 2. 대학생의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
|---|---|
| 가설 2-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2-2.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2-3.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2-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2-5. 대학생의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2-6.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2-7.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가설 3.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3-1.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3-2.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3-3.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가설 4.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4-1.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4-2.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가설 4-3.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크게 2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입력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두 번째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입력 자료 준비

입력 자료가 경로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준하

는 몇 가지 가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쳐 자료에 대한 가정을 확인하였다.

첫 째, 결측치 및 이상치를 확인하였다. 결측치는 잘못된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상치 역시 극단적인 값으로 자료의 정규성 및 선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결측치 및 이상치를 확인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 째,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경로분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적 결합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변량 정규성이란 각 변인의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 역시 정규분포, 선형성 및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변량 정규성의 확인을 통하여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 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분석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분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경로분석에 입력 자료 활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나. 경로 분석

경로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5단계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모형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세 번째로 모형 평가 및 수정을 통한 최종 모형 확정을 진행하였으며, 네 번째로 최종 모형의 효과를 분해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를 외생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변인들을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경로분석에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입력 자료인 관찰 변

인 상관행렬과 최대한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최대우도법은 모형의 적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세 번째로 모형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여 최종모형을 확정하였다. 모형의 평가란 모형의 적합성 및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형의 적합성은 설정된 모형으로 도출된 상관행렬이 입력한 상관행렬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비롯한 여러 개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한다. 카이제곱 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 수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절대 적합지수 및 상대 적합지수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표 Ⅲ-14> 참조).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5%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 Ⅲ-14〉 연구 가설별 통계기법

| 구분 | | 적합도 판단 기준 |
|---|---|---|
| 절대 적합 기준 | $\chi^2$ | p > .05 |
| | GFI(Goodness of Fit Index) | ≥ 0.9 |
| |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 0.9 |
|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 .05 : 좋은 적합도<br>.05 - .08 : 괜찮은 적합도<br>0.08-0.10 : 보통의 적합도<br>>.10 = 나쁜 적합도 |
| |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 .08 |
| 상대 적합 지수 | NFI(Normed Fit Index) | ≥ 0.9 |
| | IFI(Incremental Fit Index) | ≥ 0.9 |
| | TLI(Tucker & Lewis Index) | ≥ 0.9 |
| | CFI(Coporative Fit Index) | ≥ 0.9 |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검증의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모형 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경우 모형 만들기 작업을 수행하고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 다듬기 작업을 수행한다(Kline, 이현숙, 김수진, & 전수현, 2010).

모형 만들기는 추가 경로를 설정해서 모수를 추가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수정된 모형을 통해서 산출되는 상관행렬은 입력된 상관행렬과 유사해지게 되어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감소하게 되어 모형의 적합도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경로를 추가함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유도의 감소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소한 자유도를 기준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면 적합도의 차이는 없이 모형의 간명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반면 모형 다듬기는 설정된 경로 중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며, 단 이러한 경우 기존의 모형의 적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명도를 높이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정하여 유의미하게 검정하지 않은 경우, 즉 카이제곱 검정 기준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만 모형 다듬기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일부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경로를 제거하는 모형 다듬기 전략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모형과 수정된 모형 간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량인 것을 확인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된 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연구 모형보다 개선되어 절대 및 상대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한 모형임이 판명되었다.

네 번째로 최종모형의 인과관계 효과를 분해하였다. 효과의 분해란 특정 변인이 특정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는 것이다.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효과란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총 효과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총효과를 직접 및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각각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표집한 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46명(46.5%), 비수도권이 283명(53.5%)을 차지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분포를 확인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40% 대 60% 임을 감안하였을 때 다소 수도권 소재 대학생 응답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집 된 표본 응답자의 학교 소배지 비중이 모집단의 분포와 약 5% 내외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 이공계열 학생이 201명(38.0%), 인문 사회계열 학생이 328명으로 62%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298명 전체 56.3%이며, 여학생은 231명으로 전체 43.7%를 차지하였다. 전공계열 및 성별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다소 상이한 분포를 보였는데 모집단에서 전공계열 및 성별 비율이 1:1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공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이 과대 표집되었고(약 4:6)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과대 표집(약 5.5:4.5)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집의 결과는 대학생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소재지에 따른 표집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로서, 학교 소재지의 비중이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 3차 층화 표집의 기준인 전공계열 및 성별의 비율이 모집단의 비율과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학년별 분포를 확인하면, 1학년이 76명(14.4%), 2학년이 95명(18.0%), 3학년이 161명(30.4%), 4학년 179명(33.8%), 5학년 이상이 18명(3.4%)을 차지하였다.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소재 지역 | 수도권 | 246 | 46.5 |
| | 비수도권 | 283 | 53.5 |
| 전공 계열 | 자연·이공계열 | 201 | 38.0 |
| | 인문·사회계열 | 328 | 62.0 |
| 성별 | 남성 | 298 | 56.3 |
| | 여성 | 231 | 43.7 |
| 학년 | 1학년 | 76 | 14.4 |
| | 2학년 | 95 | 18.0 |
| | 3학년 | 161 | 30.4 |
| | 4학년 | 179 | 33.8 |
| | 5학년 이상 (초과학기) | 18 | 3.4 |
| 합계 | | 529 | 100 |

## 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정규성 검증 및 상관관계

### 가.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인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 탐색의도의 경우 3.82의 평균이 나타났다.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결과, 성실성 3.35, 외향성 3.38, 개방성 3.39로 유사한 수준의 평균값이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지의 경우 평균값이 3.45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보적지지 11.56, 대화적지지 14.50, 정서적지지 14.99, 경제적지지 15.44, 경험적지지 12.47로 나타났다. 진로 학습경험의 경우 평균값이 3.1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숙달경험 3.36, 언어적 격려 3.21, 대리학습 3.19, 긍정정서 각성 3.11, 부정정서각성은 3.29의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 중 부정정서각성은 역채점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균값이, 전체 진로학습경험 변인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경우 역채점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값이 3.68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경우 다소 높은 평균값으로 3.97이 나타났다.

〈표 Ⅳ-2〉 변인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반응가능 범위 | 5점 환산 평균 |
|---|---|---|---|---|
| 진로탐색의도 | 38.35 | 6.25 | 10-50 | 3.84 |
| 성실성 | 33.64 | 5.93 | 10-50 | 3.36 |
| 외향성 | 33.74 | 7.76 | 10-50 | 3.37 |
| 개방성 | 33.75 | 5.34 | 10-50 | 3.38 |
| 부모 진로지지 | 69.29 | 14.49 | 20-100 | 3.46 |
| 정보적 지지 | 11.61 | 3.86 | 4-20 | 2.90 |
| 대화적 지지 | 14.50 | 3.64 | 4-20 | 3.63 |
| 정서적 지지 | 15.07 | 3.42 | 4-20 | 3.77 |
| 경제적 지지 | 15.46 | 3.73 | 4-20 | 3.86 |
| 경험적 지지 | 12.64 | 3.84 | 4-20 | 3.16 |
| 진로 학습 경험 | 62.50 | 11.03 | 20-100 | 3.12 |
| 성공 경험 | 13.49 | 3.26 | 4-20 | 3.37 |
| 언어적 격려 | 13.03 | 3.25 | 4-20 | 3.26 |
| 대리학습 | 12.79 | 3.54 | 4-20 | 3.20 |
| 긍정정서각성 | 12.40 | 2.85 | 4-20 | 3.10 |
| 부정정서각성 | 10.79 | 3.80 | 4-20 | 2.70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29.46 | 5.34 | 8-40 | 3.68 |
| 진로결정결과기대 | 47.87 | 6.40 | 12-60 | 3.99 |
| 내재적 결과기대 | 29.42 | 4.02 | 7-35 | |
| 외재적 결과기대 | 18.45 | 3.43 | 5-25 | |

주 1: 진로학습경험의 경우, 부정정서 각성 역채점한 값으로 통계치 산출

## 나.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활용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본래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모두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변인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절대값 3.0 이내, 첨도지표 절대값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3〉 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 변인 | 최소 | 최대 | 왜도(Skewness) | 첨도(Kurtosis) |
|---|---|---|---|---|
| 진로탐색의도 | 10 | 50 | -.65 | 4.37 |
| 성실성 | 19 | 50 | .09 | 2.66 |
| 외향성 | 11 | 50 | -.26 | 2.92 |
| 개방성 | 17 | 50 | -.06 | 2.87 |
| 부모 진로지지 | 20 | 100 | -.46 | 3.35 |
| 정보적 지지 | 4 | 20 | -.06 | 2.40 |
| 대화적 지지 | 4 | 20 | -.70 | 3.30 |
| 정서적 지지 | 4 | 20 | -.84 | 3.76 |
| 경제적 지지 | 4 | 20 | -.97 | 3.70 |
| 경험적 지지 | 4 | 20 | -.23 | 2.43 |
| 진로 학습 경험 | 30 | 97 | -.01 | 2.89 |
| 성공 경험 | 4 | 20 | -.21 | 2.95 |
| 언어적격려 | 4 | 20 | -.18 | 3.22 |
| 대리학습 | 4 | 20 | -.23 | 2.67 |
| 긍정정서각성 | 4 | 20 | .24 | 3.18 |
| 부정정서각성 | 4 | 20 | .43 | 2.84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1 | 40 | -.35 | 3.44 |
| 진로결정결과기대 | 29 | 60 | -.10 | 2.64 |
| 내재적 결과기대 | 17 | 35 | -.34 | 2.50 |
| 외재적 결과기대 | 8 | 25 | -.06 | 2.78 |

주 1: 진로학습경험의 경우, 부정정서 각성 역채점한 값으로 통계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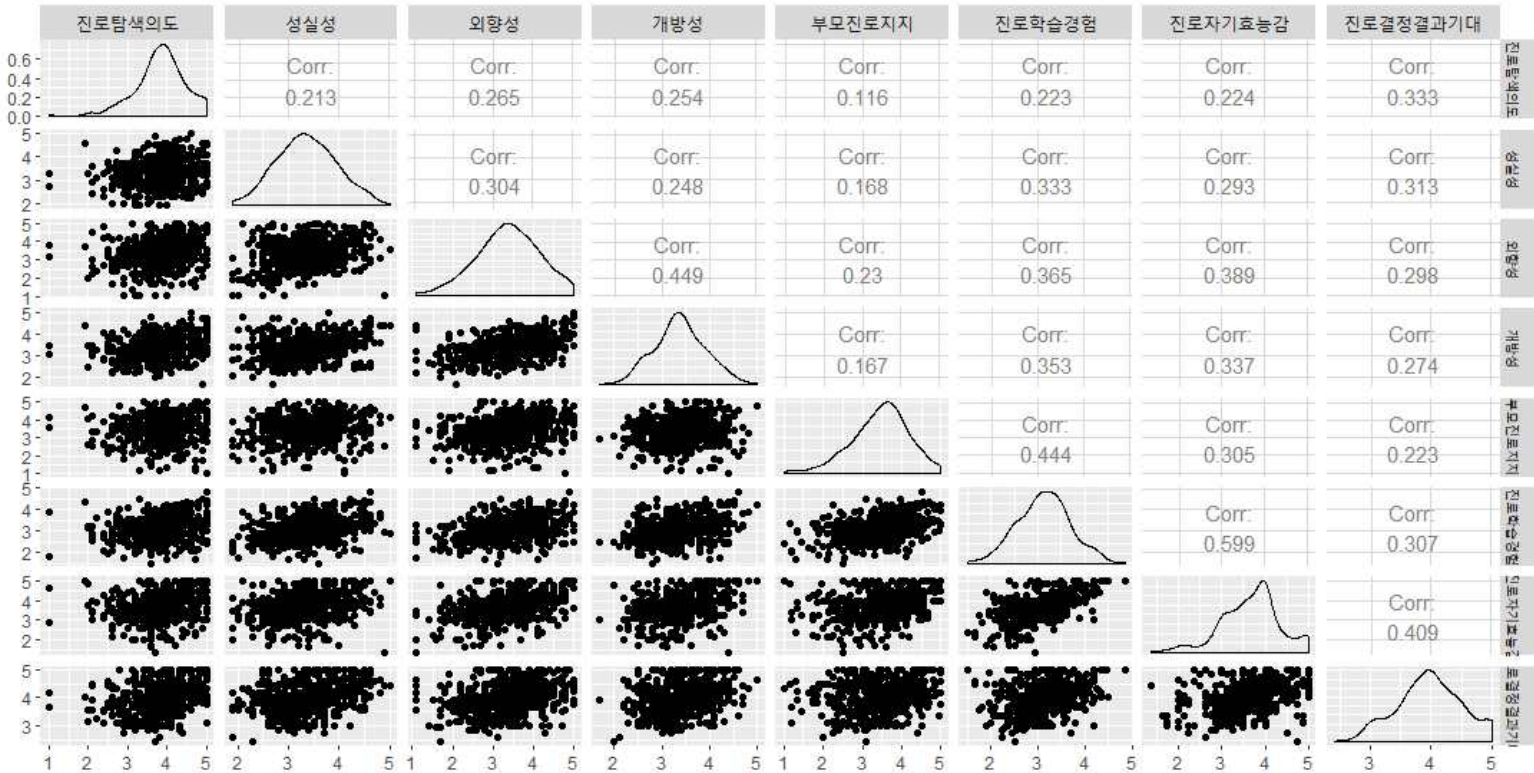
## 다.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경로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변인 간 상관행렬은 다음과 같다(<표 Ⅳ-4> 참고).

〈표 Ⅳ-4〉 변인 간 상관행렬

| 변인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진로탐색의도 | | 1 | | | | | | | | | | | | | | | | |
| 2. 성실성 | | 0.215*** | 1 | | | | | | | | | | | | | | | |
| 3. 외향성 | | 0.266*** | 0.297*** | 1 | | | | | | | | | | | | | | |
| 4. 개방성 | | 0.246*** | 0.246*** | 0.447** | 1 | | | | | | | | | | | | | |
| 부모 진로 지지 | 5. 정보적 지지 | 0.116** | 0.105** | 0.163* | 0.140** | 1 | | | | | | | | | | | | |
| | 6. 대화적 지지 | 0.110** | 0.177*** | 0.261*** | 0.146** | 0.649*** | 1 | | | | | | | | | | | |
| | 7. 정서적 지지 | 0.086* | 0.193*** | 0.201*** | 0.127** | 0.454*** | 0.692*** | 1 | | | | | | | | | | |
| | 8. 경제적 지지 | 0.038 | 0.009 | 0.088* | 0.061 | 0.442*** | 0.473*** | 0.419*** | 1 | | | | | | | | | |
| | 9. 경험적 지지 | 0.065 | 0.149** | 0.202*** | 0.186*** | 0.692*** | 0.617*** | 0.461*** | 0.379*** | 1 | | | | | | | | |
| 진로 학습 경험 | 10. 성공 경험 | 0.193*** | 0.260*** | 0.247*** | 0.250*** | 0.269*** | 0.332*** | 0.341*** | 0.084 | 0.297*** | 1 | | | | | | | |
| | 11. 언어적 격려 | 0.231*** | 0.297*** | 0.287*** | 0.294*** | 0.356*** | 0.360*** | 0.387*** | 0.151** | 0.374*** | 0.741*** | 1 | | | | | | |
| | 12. 대리학습 | 0.269*** | 0.201*** | 0.240*** | 0.276*** | 0.346*** | 0.241*** | 0.189*** | 0.126*** | 0.305*** | 0.325*** | 0.405*** | 1 | | | | | |
| | 13. 긍정정서각성 | 0.272*** | 0.112*** | 0.240*** | 0.314*** | 0.239*** | 0.240*** | 0.232*** | 0.143*** | 0.219*** | 0.349*** | 0.296*** | 0.351*** | 1 | | | | |
| | 14. 부정정서각성 | -0.163*** | 0.225*** | 0.208*** | 0.068 | 0.108* | 0.186*** | 0.206*** | 0.025 | 0.131** | 0.204*** | 0.208*** | 0.051 | 0.104* | 1 | | | |
| 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0.232*** | 0.291*** | 0.386*** | 0.342*** | 0.248*** | 0.325*** | 0.282*** | 0.090* | 0.277*** | 0.505*** | 0.456*** | 0.339*** | 0.474*** | 0.260*** | 1 | | |
| 진로 결정 결과 기대 | 16. 내재적 결과기대 | 0.295*** | 0.256*** | 0.296*** | 0.277*** | 0.082 | 0.1301* | 0.143* | 0.125** | 0.093* | 0.234*** | 0.205*** | 0.126** | 0.215*** | 0.024 | 0.444*** | 1 | |
| | 17. 외재적 결과기대 | 0.141** | 0.280*** | 0.201*** | 0.176*** | 0.203*** | 0.217*** | 0.209*** | 0.141*** | 0.216*** | 0.267*** | 0.280*** | 0.207*** | 0.254*** | 0.041 | 0.244*** | 0.471***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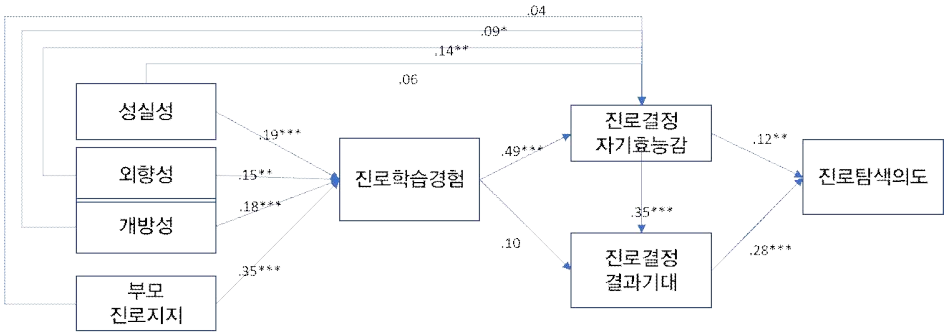
주 : *p<.05, **p<.01, ***p<.001




[그림 Ⅳ-1] 변인의 히스토그램, 변인 간 산포도 및 상관행렬

## 3. 가설적 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R 3.6.1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 :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주 : *p<.05, **p<.01, ***p<.001

### 가.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 |
|---|
| 가설 1. 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

연구 모형에서 활용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chi^2$, GFI, AGFI, RMSEA, SRMR, NFI, IFI, TLI, CFI의 총 9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 구분 | | 적합도 판단 기준 | 적합도 지수 | 해석 |
|---|---|---|---|---|
| 절대적합기준 | $\chi^2$ | p > .05 | 61.215 (df=9, p=.000) | 미해석 |
| | GFI(Goodness of Fit Index) | ≥ 0.9 | 0.973 | 적합 |
| |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 0.9 | 0.893 | 부적합 |
|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 .05 : 좋은 적합도<br>.05 - .08 : 괜찮은 적합도<br>.08 - .10 : 보통의 적합도<br>>.10 : 나쁜 적합도 | 0.105 | 나쁨 |
| |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 .08 | 0.064 | 적합 |
| 상대적합지수 | NFI(Normed Fit Index) | ≥ 0.9 | 0.935 | 적합 |
| | IFI(Incremental Fit Index) | ≥ 0.9 | 0.944 | 적합 |
| | TLI(Tucker & Lewis Index) | ≥ 0.9 | 0.822 | 미해석 |
| | CFI(Coporative Fit Index) | ≥ 0.9 | 0.943 | 적합 |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해보면 $\chi^2$, AGFI, RMSEA, TLI 4개 지수가 적합도 판단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외 나머지 적합도 지수는 이 연구모형이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chi^2$의 경우, 표본의 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표본의 수가 500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 이 연구의 사례수가 529명이라는 점에서 $\chi^2$검정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TLI 지수 역시 표본 크기 및 모형의 간명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할지라도 모형이 다소 복잡해지면 TLI의 값은 높지 않을 수가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TLI 지수 역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판단하였다.

그 외 AGFI 및 RMSEA 지수의 경우, 적합도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제시되어(AGFI = .893 ≤ .09, RMSEA = .105 ≥ .10) 연구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로계수 분석을 통하여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확인 후 모형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 나. 경로계수 분석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대부분의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실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결과기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6> 참조).

〈표 Ⅳ-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 구분 | | | 비표준 화계수 | 표준화 계수 | S. E.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탐색의도 | 0.110** | 0.118** | 0.042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0.325*** | 0.278*** | 0.052 |
| 진로학습경험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589*** | 0.486*** | 0.05 |
| 성실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066 | 0.059 | 0.041 |
| 외향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123*** | 0.143*** | 0.034 |
| 개방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108* | 0.086* | 0.048 |
| 부모진로지지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033 | 0.036 | 0.035 |
| 진로학습경험 | → | 진로결과기대 | 0.097 | 0.100 | 0.048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과기대 | 0.279*** | 0.350*** | 0.04 |
| 성실성 | → | 진로학습경험 | 0.176*** | 0.190*** | 0.035 |
| 외향성 | → | 진로학습경험 | 0.106*** | 0.150*** | 0.029 |
| 개방성 | → | 진로학습경험 | 0.186*** | 0.180*** | 0.041 |
| 부모진로지지 | → | 진로학습경험 | 0.268*** | 0.352*** | 0.028 |

주 : *p<.05, **p<.01, ***p<.001

한편, 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생 변인이 외생 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중상관제곱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같은 의미로서 설명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연구모형에서는, 진로탐색의도의 경우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의하여 약 11.8%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학습경험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에 의하여 34.0%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및 진로학습경험에 의하여 약 40.7% 설명되었으며,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경우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의하여 약 17.5%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의 경우 외생변수로서 다중상관제곱을 구할 수 없다.

〈표 Ⅳ-7〉 변인의 다중상관자승( $R^2$ )

| 변인 | 다중상관자승( $R^2$ ) |
|---|---|
| 진로탐색의도 | 0.118 |
| 진로학습경험 | 0.340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407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175 |

## 다. 모형 수정 및 최종 구조(이론)모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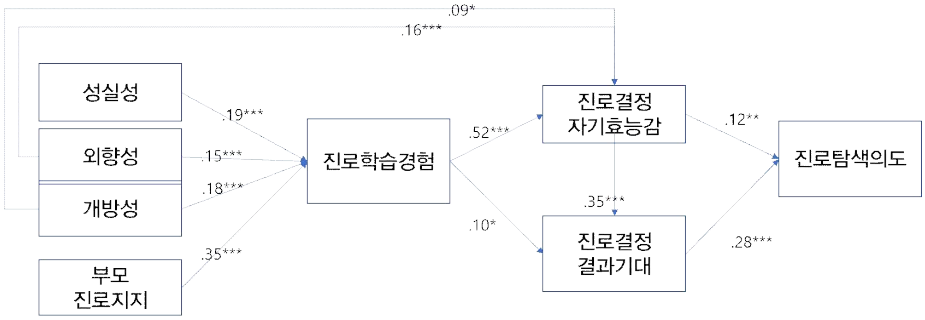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부적합한 적합도 지수 및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경로계수를 고려하여, 모형 다듬기 전략을 이용하여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 수정은 이론적 근거 외에, 모형의 적합도 검정의 통계적 근거를 통하여서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성 및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학습경험이 완전 매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하고, 모형다듬기의 통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차이량은 자유도 2에서 5.99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표 Ⅳ-8>을 보면 변화량이 3.918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량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Ⅳ-8〉 모형수정 과정에서의 모형별 카이제곱 변화량

| 변인 | 연구 모형 | 수정모형 (최종모형) |
|---|---|---|
| $\chi^2$(카이제곱) | 61.215 | 65.133 |
| △$\chi^2$(카이제곱 변화량) | 3.918 증가 | |
| △df(자유도 변화량) | 2 증가 | |
| △df=2에서 유의미한 카이제곱 변화량 | 5.99 | |

## 4. 최종 구조 모형 분석

모형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3]과 같다. 본 모형에서는 처음 설정된 모형과 달리 '성실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로가 설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 최종 모형 분석 결과

주 : *p<.05, **p<.01, ***p<.001

### 가. 최종 모형의 적합도 분석

최종 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chi^2$, GFI, AGFI, RMSEA, SRMR, NFI, IFI, TLI, CFI의 총 9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최종 모형의 적합도

| 구분 | | 적합도 판단 기준 | 초기모형 | | 최종모형 | |
|---|---|---|---|---|---|---|
| | | | 적합도 지수 | 해석 | 적합도 지수 | 해석 |
| 절대적합기준 | $\chi^2$ | p > .05 | 61.215 (df=9, p=.000) | 미해석 | 65.133 (df=11, p=.000) | 미해석 |
| | GFI | ≥ 0.9 | 0.973 | 적합 | 0.972 | 적합 |
| | AGFI | ≥ 0.9 | 0.893 | 부적합 | 0.909 | 적합 |
| | RMSEA | ≤ .05 : 좋은 적합도<br>.05 - .08 : 괜찮은 적합도<br>.08 - .10 : 보통의 적합도<br>>.10 : 나쁜 적합도 | 0.105 | 나쁨 | 0.096 | 보통 |
| | SRMR | ≤ .08 | 0.064 | 적합 | 0.067 | 적합 |
| 증분적합지수 | NFI | ≥ 0.9 | 0.935 | 적합 | 0.931 | 적합 |
| | IFI | ≥ 0.9 | 0.944 | 적합 | 0.942 | 적합 |
| | TLI | ≥ 0.9 | 0.822 | 미해석 | 0.850 | 미해석 |
| | CFI | ≥ 0.9 | 0.943 | 적합 | 0.941 | 적합 |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해보면 $\chi^2$, TLI 2개 지수가 적합도 판단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외 나머지 적합도 지수는 최종 모형이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chi^2$ 및 TLI의 경우, 앞에서 기술하였던 것과 같이 사례 수 및 모형의 복잡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 연구 모형에서 부적합하다고 나타났던 AGFI 및 RMSEA의 경우 최종모형에서는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적합 및 보통으로 판정되었다. AGFI의 경우, 최종모형에서 .909로 나타나 .90 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RMSEA의 경우 .096으로 나타나 .10 이하인 경우 보통의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의 해석 결과, 본 최종 모형이 주어진 자료를 적합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최종 모형을 기반으로 경로계수 분석 및 효과의 분해를 실시하였다.

## 나.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및 매개효과 분석

최종 모형을 도출되는 상관행렬이 본 자료의 상관행렬과 부합하다는 판단되어, 추정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 1)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분석 결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0>).

〈표 Ⅳ-10〉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경로계수

| 구분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S. E.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279*** | 0.350*** | 0.04 |
| 진로학습경험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624*** | 0.515*** | 0.045 |
| 진로학습경험 |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097* | 0.100* | 0.048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진로탐색의도 | 0.110** | 0.118** | 0.042 |
| 진로결정결과기대 | → | 진로탐색의도 | 0.325*** | 0.278*** | 0.052 |

주 : *p<.05, **p<.01, ***p<.001

> 가설 2-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beta$=.350,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beta$=.515,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2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2-3.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beta$=,100, p<.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2-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beta$=.118,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4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2-5. 대학생의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beta$=.278, p<.001)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5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직, 간접 효과를 분해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표 Ⅳ-11>). 또한 분해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직접, 간접 효과 및 총 효과의 경우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방법이란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의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자료를 통해 얻어진 표본상관행렬로부터 무선표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수의 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시킨다는 가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부트스트랩 방식은 모집단에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게 된다는 것이다(김계수, 2010).

이 연구의 자료는 일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최대우도법으로 추론하였지만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효과를 분해하여 이 값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Ⅳ-11〉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효과분해

| 경로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총효과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의도 | 0.11** | 0.118** | 0.091*** | 0.097*** | 0.201*** | 0.215***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91*** | 0.097*** | - | - |
| 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0.325*** | 0.278*** | - | - | 0.325*** | 0.278*** |
| 진로학습경험→진로탐색의도 | - | - | 0.157*** | 0.139*** | 0.157*** | 0.139*** |
| 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의도 | - | - | 0.069* | 0.061* | - | - |
| 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57*** | 0.05*** | - | - |
| 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31 | 0.028 | - | - |

주 1) p-value는 부트스트랩 추정 p값임.

2) *p<.05, **p<.01, ***p<.001

가설 2-6.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97, p<.001)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6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2-7.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학습경험이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beta$=.139,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학습경험이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61, p<.05)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5,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학습경험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이중매개 해서는($\beta$=.28,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7을 채택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외생변인들의 다중상관제곱을 확인하였다(<표 Ⅳ-12> 참고). 다중상관제곱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가를 나타낸다(배병렬, 2014). 진로탐색의도의 경우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의하여 약

11.8%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학습경험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에 의하여 34.0%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및 진로학습경험에 의하여 약 40.3% 설명되었으며, 진로결정결과기대의 경우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하여 약 17.5%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변인의 다중상관자승( $R^2$ )

| 변인 | 다중상관자승( $R^2$ ) |
|---|---|
| 진로탐색의도 | 0.118 |
| 진로학습경험 | 0.340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403 |
| 진로결정결과기대 | 0.175 |

### 2)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최종 모형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계수를 확인한 후,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하여 각 경로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분석 결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3>).

〈표 Ⅳ-13〉 성격,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경로계수

| 구분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S. E. |
|---|---|---|---|---|---|
| 성실성 | → | 진로학습경험 | 0.176*** | 0.190*** | 0.035 |
| 외향성 | → | 진로학습경험 | 0.106*** | 0.150*** | 0.029 |
| 개방성 | → | 진로학습경험 | 0.186*** | 0.180*** | 0.041 |
| 외향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135*** | 0.156*** | 0.033 |
| 개방성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0.113* | 0.090* | 0.048 |

주 : *p<.05, **p<.01, ***p<.001

가설 3-1.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대학생의 성실성은 진로학습경험($\beta$=.190,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대학생의 외향성은 진로학습경험($\beta$=.150,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대학생의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beta$=.186,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대학생의 성실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060,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의 외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156,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대학생의 개방성은 진로학습경험($\beta$=.090, p<.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가설 3-1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성격 중, 성실성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직, 간접 효과를 분해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표 Ⅳ-14>). 또한 분해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직접, 간접 효과 및 총 효과의 경우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표 Ⅳ-14〉 성격,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효과분해

| 경로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총효과 | |
|---|---|---|---|---|---|---|
| | B | β | B | β | B | β |
| 성실성→진로탐색의도 | - | - | 0.026*** | 0.026*** | 0.026*** | 0.026*** |
| 성실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의도 | - | - | 0.012* | 0.012* | - | - |
| 성실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1* | 0.009** | - | - |
| 성실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06** | 0.005** | - | - |
| 외향성→진로탐색의도 | - | - | 0.044*** | 0.054*** | 0.044*** | 0.054*** |
| 외향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의도 | - | - | 0.007* | 0.009* | - | - |
| 외향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06** | 0.007** | - | - |
| 외향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03 | 0.004 | - | - |
| 외향성→진로결정효능감→진로탐색의도 | - | - | 0.015* | 0.018* | - | - |
| 외향성→진로결정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12** | 0.015** | - | - |
| 개방성→진로탐색의도 | - | - | 0.052*** | 0.044*** | 0.052*** | 0.044*** |
| 개방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의도 | - | - | 0.013* | 0.011* | - | - |
| 개방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11** | 0.009** | - | - |
| 개방성→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06 | 0.005 | - | - |
| 개방성→진로결정효능감→진로탐색의도 | - | - | 0.012 | 0.011 | - | - |
| 개방성→진로결정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10* | 0.009* | - | - |

주 1) p-value는 부트스트랩 추정 p값임.
2) *p<.05, **p<.01, ***p<.001

가설 3-3.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대학생의 성실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beta$=.026,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성실성이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이중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12, p<.05)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실성이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삼중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9,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실성이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5,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외향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beta$=.054,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외향성이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이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9, p<.05)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향성이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삼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7, p<.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향성이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4,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외향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18, p<.05)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향성이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15, p<.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개방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beta$=.044,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방성이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이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11, p<.05)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방성이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삼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9,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방성이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5,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개방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11,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개방성이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09, p<.05)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3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3)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영향관계

최종 모형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가설 4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계수를 확인한 후,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하여 각 경로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분석 결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5> 참고).

〈표 Ⅳ-15〉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경로계수

| 구분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S. E. |
|---|---|---|---|---|---|
| 부모진로지지 | → | 진로학습경험 | 0.268*** | 0.352*** | 0.028 |

주 : *p<.05, **p<.01, ***p<.001

가설 4-1.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beta$=.35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1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4-2.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004,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 4-1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직,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표 Ⅳ-16>). 또한 분해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직접, 간접 효과 및 총 효과의 경우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표 Ⅳ-16〉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의 효과분해

| 경로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총효과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부모진로지지→진로탐색의도 | - | - | 0.042*** | 0.049*** | 0.042*** | 0.049*** |
| 부모진로지지→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의도 | - | - | 0.018* | 0.021* | - | - |
| 부모진로지지→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15*** | 0.018*** | - | - |
| 부모진로지지→진로학습경험→진로결정결과기대→진로탐색의도 | - | - | 0.008 | 0.010 | - | - |

주 1) p-value는 부트스트랩 추정 p값임.
2) *p<.05, **p<.01, ***p<.001

| 가설 4-3.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beta$=.049,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이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21, p<.05)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실성이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삼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18, p<.001)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실성이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beta$=.010,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3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 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자기관리 모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결정과정에 대한 심리적, 인지적 구인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탐색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특별히 진로학습경험 척도가 포함된 진로자기관리모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연구모형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적용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모형을 검증한 연구 결과의 논의사항을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학습경험 척도를 번안,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근원인 성공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정서각성, 부정정서각성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성공 경험의 한 문항이 성공 경험과 언어적 격려 두 하위요인에 각각 부하되었다. 이는 진로학습경험의 요인구조를 탐색적으로 연구한 Lent et al.(2017) 및 Ireland & Lent(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Lent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성공 경험과 언어적 격려 두 요인이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항을 개선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이 구별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공 경험의 한 문항이 언어적 격려에도 부하된 것은 이러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나, Ireland & Lent(2018)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진로 탐색의 문제가 수학 문제와 같이 특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탐색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공 여부가 주로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reland & Lent(2018)에서 성공 경험과 언어적 격려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한 4요인 모형과 각각의 요인을 분리한 5요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5요인 모형

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 및 요인 부하량 값의 비교(성공경험 부하량 = .45, 언어적 격려 부하량 = .42)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도 해당 문항이 비록 두 요인 모두에 부하되었음에도 성공 경험에 속하는 문항인 것으로 판별하였다.

둘째, 진로학습경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직접적인 경로가 구명되었다. 학습경험이라는 개념이 효능감의 근원으로서 이론적으로 등장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으나, 해당 척도가 구성되지 않아 경험적인 검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연구에서 진로학습경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직접적인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학습경험의 하위 척도를 각각 분리하여 확인한 Ireland & Lent(2018)의 연구와 구별되는 점이나, 전체적으로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의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beta$=.515, p<.001)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서 진로학습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진로학습경험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 간 직접 경로가 구명되었다.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직접 경로가 구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직접 경로가 구명됨으로써($\beta$=.118, p<.001) 진로 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더 많은 진로 탐색을 하려고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미리(2017)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beta$=.24 / .27, p<.001)을 검증하였다. 또한 양난미(2006)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구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진로

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와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beta$=.278, p<.001)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beta$=.118, p<.001)과 비교해봤을 때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직접효과 외 간접효과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결과가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전미리(2017)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를 고려할 때,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 각각 투입되어 설정된 3가지 모형에서 진로결정결과기대가($\beta$=.347 / .319 / .312, p<.001) 진로결정결과기대($\beta$=.412 / .413 / .386, p<.001)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역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총 효과가($\beta$=.215, p<.001)로 나타나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총 효과($\beta$=.278, p<.001) 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전미리(2017)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탐색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진로결정결과기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미리(2017)의 연구와 이 연구는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척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척도의 다양성과 독립적으로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진로탐색의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진로탐색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자기관리 모형에 근거하여 성격요인(성실

성, 외향성, 개방성)이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특별히 성격요인(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성격요인(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 두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검증한 연구 결과의 논의사항을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으로 개방성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Ireland & Lent(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성격 변인으로서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을 택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신경증 외에 개방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개방성은 진로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에서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되었을 뿐 아니라, 변화가 많은 사회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성격요인으로서 진로자기관리모형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의 진로학습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성격요인 순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성실성이 진로학습경험에 가장 높은 영향력($\beta$=.19, p<.001)을 보였으며, 개방성($\beta$=.18, p<.001) 및 외향성($\beta$=.15, p<.00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촉진하는 성격요인으로서 성실성이 가장 강력한 혹은 유일한 예측자라는 선행연구(Reed, Brunch, & Hasse, 2004; 서미옥, 2010)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를 고려하면 외향성, 개방성 및 성실성이 순으로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검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성격 요인 중 어떠한

성격요인이 진로학습경험을 넘어서서 진로탐색의도 혹은 진로결정수준 등과 같이 진로 탐색 및 결정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실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해당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검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전미리, 2017)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해 볼 때 성실성은 진로학습경험 없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로학습경험을 통하여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실성이 진로탐색의도를 높일 때 진로학습경험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서만 진로탐색의도를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이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목표를 높인다는 만족모형(Lent & Brown, 2008) 및 여러 선행연구들(Lent et al., 2016; Roche, Daskalova, Brown, & Lent, 2017; Lim, Lent,, Penn, & Tracey, 2016)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다. 그러나 Roche et al.(2017)의 연구에서 성실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는 과정이 성실성이 진로학습경험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해석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진로학습경험의 효과가 성실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효과를 대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성실성이 진로탐색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전미리, 2017)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진로탐색의도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해당 경로의 효과에 관하여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자기관리 모형에 근거하여 맥락적 요인인

부모진로지지가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특별히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 두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검증한 연구 결과의 논의사항을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진로지지의 진로학습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확인되었다.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beta$=.35, p<.001) 주었으며, 이는 외생변인으로 설정한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부모진로지지의 진로학습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진로학습경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경험한 진로 탐색 및 결정 경험이므로, 대학생 시기 진로학습경험은 유년기 및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부모진로지지가 높은 사람의 경우, 대학생 시기 뿐 아니라 유년기 및 청소년기에서의 진로학습경험 또한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학습경험이 높은 이유는 진로학습경험의 하위요인인 성공 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정서각성 및 부정정서각성을 고려해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유년기, 청소년기 및 대학생 시기에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서 부모님이 존재하며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편이 부모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밀접하게 진로 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대리학습의 측면에서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학습경험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어적 피드백 및 기타 다른 방식으로의 피드백을 통해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한 개인이 갖게 되는 긍정 및 부정 정서가 형성되는데, 따라서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학습경험에서 긍정적인 정서 각성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 각성이 낮게 된다. 따라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학습경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모형에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전미리, 2017)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 시기의 자율, 독립과 같은 특성과 연관지어 살펴볼 때 대학생 시기의 부모진로지지는 더 이상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진로학습경험을 통해서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즉,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대학생 시기에 들어서는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얻는 부모진로지지가 즉각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진로학습경험을 높이고 이러한 진로학습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생 시기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진로학습경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되며, 대학생 시기의 진로탐색의도를 높이기 위한 부모의 개입전략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자기관리 모형을 토대로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 및 분석하고 모형 내에서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주어진 경험적 자료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의 대학생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4년제 대학생은 총 1,467,125명으로 수도권 572,418명, 비수도권 894,707명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집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되 설문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성별 및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이러한 결과 총 540명을 표집 및 설문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탐색의도,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일반적 특성 총 9가지 영역을 질문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진로탐색의도는 1요인 10문항, 성실성 1요인 10문항, 외향성 1요인 10문항, 개방성 1요인 10문항, 부모진로지지 5요인 20문항, 진로학습경험 5요인 20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요인 8문항, 진로결정결

과기대 2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영역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에 응답자 성별, 연령, 학년 및 전공계열, 학교 소재지 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은 선택형 응답과 서술형 응답형식을 혼용하였다. 조사도구 중 번안이 필요한 문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번안하였으며, 수정문항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본 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도권 6개 학교, 비수도권 9개 학교를 선정하여 표집하였으며 학교별 협력자 1-2명에게 약 30-40부 정도의 설문을 의뢰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로는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확인하였으며 경로분석 모형 적합도 및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R 3.6.1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은 진로탐색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학생의 성격(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탐색의도에 사회인지요인(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

## 2.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대표하기에 적합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부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결과기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함께 유의미하게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직접경로의 경우 진로결정결과기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학습경험은 성격 및 부모진로지지의 외부적 요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를 매개하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작용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실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학습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학습경험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쳐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제언

첫째,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는 데 특히 부모진로지지 및 진로학습경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필요하다.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학습경험은 진로탐색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면서도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모진로지지의 경우 진로학습경험을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로학습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 및 진로결정이 필요한 연구대상에게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예측하는데 성격, 지지원, 학습경험, 효능감 및 결과기대가 주요한 변인이라고 설정하고 모형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모형 검증 및 모형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실성, 외향성 및 개방성의 성격 요인들이 진로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학습경험 척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진로학습경험은 그동안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이론적 검증에 활용되지 못하였다. 최근 척도가 개발되어 한국어로 번안하여 이 연구에서 활용하였으나, 보다 나은 척도 구성을 위해 척도의 보완 및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진로학습경험 및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 시켜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로탐색의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진로 대안을 얻는 것은 아니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구조적 조건을 배제한 채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탐색의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성격적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공윤정. (2005). 진로상담 : 진로장벽 ;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권석만. (2015). **현대 성격 심리학 -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서울: 학지사.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봉환. (2010). **진로상담이론 :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 김봉환 [외]공저. 서울: 학지사.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수임, 김창대. (2009). 진로상담 :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학회**, 16(1), 1-39.

김영은. (2009).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선택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 (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 김태환.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류근관. (2010). **통계학** / 저자: 류근관 (제2판. ed., 통계학총서). 파주: 法文社.

민경희. (2012). **대학생용 정서·성격적 진로문제(EPCD) 척도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미라. (2013). **Big 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박완성. (2003). 고등학교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19-141.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서미옥. (2010). 성취목표지향과 성격, 자기효능감 및 내-외적동기의 관계. **교육학연구**, 48(2), 21-44

선혜연. (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1(3), 49.

선혜연, 김계현. (2007). 진로상담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분석 - 1997년-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합의적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성하은. (20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국내 대학생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태용, 이기범, Michael C. Ashton.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이미진. (2012).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상민, 남숙경, 박희락, 김동현. (2007). 진로상담 :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의 구인타당도 재점검. **상담학연구**, 8(3), 1047-1062.

이상희. (2009). 진로상담 :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임수진. (2015).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349-363.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전미리. (2017).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모형에 따른 부모지지와 대학생의 성격요인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전미리, 김봉환.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 · 행동적 변인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28(4), 41-57.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 – 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허강석. (201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 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Whole No. 211), 1-171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In R. Vasta(Ed.), *Annals of child deveopment*, Vol. 6. Six theories of child deveopment(pp.1-60). Greenwich, CT: JAI Press.

Bike, D. H. (2013).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Ph.D.)*. University of Missouri – Columbia, Ann Arbor.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Betz,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4), 413-428.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Betz, N. E. (2007). Career self-efficacy: Exemplary recent research and emerging direc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03-422.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Braunstein-Bercovitz, H., Benjamin, B. A., Asor, S., & Lev, M. (2012). Insecure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pessimis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2), 236-244.

Brown, S. D., Hacker, J., Abrams, M., Carr, A., Rector, C., Lamp, K., … Siena, A. (2012).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 3-21.

Brown, S. D. & Hirschi, A. (2013). Personality, 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299-328). Hoboken, NJ: Wiley & Sons Inc.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54-366.

Buhler, C. (1968). The developmental structure of goal setting in group and individual studies. In C. Buhler & F. Massrik(Ed.), The course of human life, (pp. 27-54). NY: Springer.

Cattell, R. B. (1943).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basic traits resolved into cluster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38(4), 476-506.

Clancy, S., & Dollinger, S. (1993). Identity, Self, and Personality: I. Identity Statu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3), 227-245.

Costa, P. T.,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 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rites, J. O. (1978).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TB/McGraw-Hill.

Digman, J. M. (1996). The curious history of the five-factor model. In J. S. Wiggins (E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pp. 1-20).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Erickson, E. H. (1976). Reflections of on Dr. Borg' s life cycle. *Daedalus*, 105, 1-28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 (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48-364.

Fiske, D. W. (1949). Consistency of the factorial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from different source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4(3), 329-344.

Frey, C. B., & Osborne, M. A.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254-280.

Gati, I., Gadassi, R., Saka, N., Hadadi, Y., Ansenberg, N., Friedmann, R., & Asulin-Peretz, L. (2010).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Facets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1), 3-20.

Gati, I. (2013). Adva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183-215.

Ginzberg, E., Ginsberg, S. w., Axelor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 Press.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pp. 141-165). Beverly Hills, CA: Sage.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s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Grier-Reed, T., & Skaar, N. (2010). An Outcome Study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Indecision in an Undergraduate Constructivist Career Cours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1), 42-53.

Grier-Reed, T., & Ganuza, Z. M. (2011). Constructivism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or Asian Americans and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2), 200-205.

Hartman, R. O., & Betz, N. E. (2007). The five-factor model and career self-efficacy: General and domain-specific relationship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45-161.

Ireland, G. W. (2017). *Learning Experiences in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A Test of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PhD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Ireland, G. W., & Lent, R. W. (2018).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earning experiences: A test of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37-47.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114-158.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14-158). New York, NY: Guilford Press.

Jung, C. G. (154). *The devleopment of personality*. NY: Pantheon.

Kline, R. B., 이현숙, 김수진, & 전수현. (2010).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학지사.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Larson, L. M., Rottinghaus, P. J., & Borgen, F. H. (2002). Meta-analyses of Big Six Interests and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217-239.

Lent, R. W., & Brown, S. D. (1996).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An overview.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10.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Lent, R. W., Ezeofor, I., Morrison, M. A., Penn, L. T., & Ireland, G. W.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47-57.

Lent, R. W., Ireland, G. W., Penn, L. T., Morris, T. R., & Sappington, R. (2017). Sources of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for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A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9, 107-117.

Levinson, D. J. (1996). *The season' s of a woman' s life*. NY: Knopf.

Lim, R., Lent, R., Penn, L., & Tracey, Terence J. G. (2016). Prediction of Job Search Intentions and Behaviors: Test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5), 594-603.

Matsui, T., Matsui, K., & Ohnishi, R. (1990). Mechanisms underlying math self-efficacy learn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2), 225-238.

McCrae, R. R., & Costa, P. T., Jr. (2004). A contemplated revision of the NEO Five-Factor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3), 587-596.

McCrae, R., Costa, Jr., P., & Martin, T. (2005). The NEO-PI-3: A More Readabl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4(3), 261-270.

McCrae, R. R. (2007). Aesthetic chills as a universal marker of openness to experience. *Motivation and Emotions*, 31, 5-11.

Nancy E. Betz. (2007). Career Self-Efficacy: Exemplary Recent Research and Emerging Direc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03-422.

Ng, T. W. H., Eby, L. T., Sorensen, K. L., & Feldman, D. C. (2005). PREDIC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58(2), 367-408.

Peterson, C., & Stunkard, A. 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Reed, M., Bruch, M., & Haase, R.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23-238.

Roberts, B., Kuncel, N., Shiner, R., Caspi, A., & R. Goldberg, L. (2007). *The Power of Personality The Comparative Validity of Personality Traits, Socioeconomic Status, and Cognitive Ability for Predicting Important Life Outcomes* (Vol 2).

Roche, M., Daskalova, P., Brown, S., & Lent, R. (2017). Anticipated Multiple Role Management in Emerging Adults: A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1), 121-134.

Rossier, J. (2015). *Personality assessment and career interventions. APA handbook of career intervention*, Volume 1: Foundations., 327-350.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Part II: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8), 496-500.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2nd ed., pp. 147-183) Hoboken, NJ: Wiley.

Schaub, M. (2004).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sociocognitive variables in the relation of personality to vocational interes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4(7-A), 2463.

Schaub, M., & Tokar, D. M. (2005). The role of personality and learning experiences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2), 304-325.

Shelton, S. H. (1990). Developing the construct of general self-efficacy. *Psychological Reports*, 66(3, Pt 1), 987-994.

Sheu, H., Lent. R. W., Miller M. J., Truong N. N., Penn L. T., Cusick M. E. (2016). Meta analysis of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STEM choice in underrepresented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 Denver August.

Spurk, D., & Abele, A. (2011). Who Earns More and Why? A Multiple Mediation Model from Personality to Salary.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6(1), 87-103.

Super, D. E. (1953). A thoery of vocatioa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Vallerand, R. (1989). *Toward a methodology for the transcultural validation of psychological questionnaires: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the French language* (Vol 30).

# [부록 1] 측정 도구 번안 과정

## 1. 진로탐색의도 - Ireland & Lent(2018)[1)]

□ 진로탐색의도 문항 원문과 직역 및 의역 초안

| 구분 | 원문 | 직역 | 의역 |
|---|---|---|---|
| 설명[2)] | This scale asks about whether you intend to do different types of career planning activities over the next two months. Using the scale below,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br>Over the next two months… | 이 척도는 여러분이 다음 두 달 동안 여러 종류의 진로계획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척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문항에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 지 그 정도를 표시해주세요.<br>다음 두 달 동안… | 이 척도는 여러분이 다음 두달 간 여러 종류의 진로계획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의 점수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br>다음 두 달 동안… |
| |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Unsure/ Agree/ Strongly Agree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불확실함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불확실함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문항 | I plan to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which careers best match my interests and abilities | 나는 내 흥미와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나는 내 흥미와 능력과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 I intend to learn more about how my values (the things I most want from a career) can be met by different careers | 나는 여러 직업들에 의해 어떻게 내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지 공부할 의도가 있다. | 나는 여러 직업들에 의해 어떻게 내 진로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지 생각할 예정이다. |
| | I plan to spend time compa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career options | 나는 다양한 진로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의도가 있다. | 나는 다양한 진로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 I plan to identify my most likely career direction (or a few likely directions) | 나는 가장 그럴듯한 진로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 나는 가장 그럴듯한 진로방향이 무엇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
| | I intend to spend time thinking about how to put my career plans into action | 나는 내 진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을 보낼 생각이 있다. | 나는 내 진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1) 측정도구 번안의 구체적 과정은 '진로탐색의도'에 한하여 전체 과정을 제시하며, 그 외의 변인의 경우 최종 번안만 제시함.
2)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에 문항과 척도가 병기되어 제시되므로 '아래의 척도를 사용하여(Using the scale below)'라는 문장은 제외하였음.

□ 진로탐색의도 번안 검토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진로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하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측정도구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국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자가 번안한 측정도구의 문항이 원문의 의미와 동일한지, 측정변인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번역되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자가 작성한 직역 및 의역 초안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검토의견은 이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하 재 영
지도교수 최 수 정

【연구자 연락처】 하재영 전화: 02) 880-4896, email: chal0060@hanmail.net

다음은 ‘진로탐색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번역한 것입니다. 직역 및 의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원문 | 직역 | 의역 | 검토의견 |
|---|---|---|---|---|
| 설명 | This scale asks about whether you intend to do different types of career planning activities over the next two months. Using the scale below,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br>Over the next two months… | 이 척도는 여러분이 다음 두 달 동안 여러 종류의 진로계획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척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문항에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 지 그 정도를 표시해주세요.<br>다음 두 달 동안… | 이 척도는 여러분이 다음 두달 간 여러 종류의 진로계획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의 점수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br>다음 두 달 동안… | • |
| |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Unsure/ Agree/ Strongly Agree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불확실함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불확실함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
| 문항 | I plan to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which careers best match my interests and abilities | 나는 내 흥미와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나는 내 흥미와 능력과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
| | I intend to learn more about how my values (the things I most want from a career) can be met by different careers | 나는 여러 직업들에 의해 어떻게 내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지 공부할 의도가 있다. | 나는 여러 직업들에 의해 어떻게 내 진로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지 생각할 예정이다. | • |
| | I plan to spend time compa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career options | 나는 다양한 진로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의도가 있다. | 나는 다양한 진로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
| | I plan to identify my most likely career direction (or a few likely directions) | 나는 가장 그럴듯한 진로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 나는 가장 그럴듯한 진로방향이 무엇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 • |
| | I intend to spend time thinking about how to put my career plans into action | 나는 내 진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을 보낼 생각이 있다. | 나는 내 진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

□ 검토의견 및 수정

| 구분 | 원문 | 직역 | 의역 | 검토의견 | 수정 문항 |
|---|---|---|---|---|---|
| 설명 | This scale asks about whether you intend to do different types of career planning activities over the next two months. Using the scale below,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br>Over the next two months… | 이 척도는 여러분이 다음 두 달 동안 여러 종류의 진로계획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척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문항에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 지 그 정도를 표시해주세요.<br>다음 두 달 동안… | 이 척도는 여러분이 다음 두 달 간 여러 종류의 진로계획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의 점수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br>다음 두 달 동안… | • ‘여러’ 라는 표현보다 ‘다양한 유형의’ 라는 표현이 적절함. | .다음은 여러분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Unsure/ Agree/ Strongly Agree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불확실함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불확실함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문항 | I plan to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which careers best match my interests and abilities | 나는 내 흥미와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나는 내 흥미와 능력과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한다 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의 흥미와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
| | I intend to learn more about how my values (the things I most want from a career) can be met by different careers | 나는 여러 직업들에 의해 어떻게 내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지 공부할 의도가 있다. | 나는 여러 직업들에 의해 어떻게 내 진로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지 생각할 예정이다. | • ‘진로 가치’ 라는 용어가 어색함. 풀어쓰는 것이 필요함. | 진로에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더 알아보려고 한다. |
| | I plan to spend time compa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career options | 나는 다양한 진로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의도가 있다. | 나는 다양한 진로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진로 선택지’ 라는 용어가 어색함. ‘진로 선택지’ 보다 ‘여러 진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여러 진로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

| | | | | | |
|---|---|---|---|---|---|
| | I plan to identify my most likely career direction (or a few likely directions) | 나는 가장 그럴듯한 진로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 나는 가장 그럴듯한 진로방향이 무엇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 • 수정 보완이 필요함.<br>• 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 한다 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로 방향(혹은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진로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 | I intend to spend time thinking about how to put my career plans into action | 나는 내 진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을 보낼 생각이 있다. | 나는 내 진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 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 한다 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
| 종합의견 | • 해석 및 주술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의역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음.<br>• 문장의 의미가 명료하게 나타나고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함. | | | | • 수정하여 제시 |

2. 진로학습경험 - Lent et al.(2017)

□ 검토의견 및 수정

| 구분 | 원문 | 직역 | 의역 | 검토의견 | 1차 수정 | 2차 수정 |
|---|---|---|---|---|---|---|
| 설명 | The following questions ask about your past experiences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your career future. Such decisions can include things like what career direction to pursue, what major to declare, or what college to attend.<br>Rate your agreement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on a five-poin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장래 진로와 관련된 과거의 결정 경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과거의 결정 경험이란 어떤 진로 방향을 추구해야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혹은 어떤 대학에 갈지 등에 대한 결정들이 포함됩니다.<br>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주세요. | 다음 문항들은 진로를 결정했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과거의 진로 결정 경험에는 어떤 진로 방향을 추구할 것인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혹은 어떤 대학에 갈지 등에 대한 결정들이 포함됩니다.<br>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동의함)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주세요. | • 원문에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진로경험을 묻고 있지만, 이것이 꼭 현재는 진로결정이 종료되었다는 의미로는 느껴지지 않음. 따라서 '진로를 결정했었던' 이라는 명백한 과거형을 쓰는 것이 조금 이질적임. | 다음 문항들은 진로를 결정했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과거의 진로 결정 경험에는 어떤 진로 방향을 추구할 것인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혹은 어떤 대학에 갈지 등에 대한 결정들이 포함됩니다.<br>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확실히 그렇다)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주세요. | 다음은 과거 여러분이 내렸던 진로결정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다음은 여러분이 진로결정에 능숙한 다른 사람을 관찰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Neither Disagree nor Agree / Agree / Strongly Agree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이다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이다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Neither Disagree nor Agree' 에 대한 의역 수정이 필요함.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확실히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 문항 | The way I have approached important career-related decisions has worked well for me in the past. | 내가 중요한 진로 관련 결정들에 접근한 방식은 과거에 나에게 잘 작동했다. | 과거 중요했던 진로 결정에 관해 내가 접근했던 방식은 나에게 효과적이었다. | • 동사 시제로 과거를 표현하고, '과거' 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br>• '효과적이었다.' 앞부분의 번역투 문장을 자연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br>• 수동형보다는 능동태 문장이 자연스러움. | 나는 중요한 진로결정을 앞두고 효과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고민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나는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

| | | | | | | |
|---|---|---|---|---|---|---|
| | Important others have let me know that I am resourceful when it comes to gathering information needed to make career-related decisions, |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 내가 수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 | •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어색함. | 부모님, 선생님 혹은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 고 말해 준 적이 있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부모, 선생님, 친구 등) 나를 볼 때, 내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수집한다고 말해주었다. |
| | I have role models who are good at making important career decisions. | 내게는 중요한 진로 결정에 능숙한 롤 모델이 있다. | 내게는 중요한 진로 결정에 능숙한 롤 모델이 있다. | • '내게는' 보다는 '나는' 이라는 표현이 적절함.<br>• 번역투가 강하고 비문임.<br>• 'important' 를 '중요한' 이외의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는 진로 결정을 내리는 데 능숙한 롤 모델이 있다. | 나는 중요한 진로 결정을 잘 내리는 롤 모델들이 있다. |
| | I have done a good job of weighing the positives and negatives of different options when I have had to make career-related decisions. | 과거에 내가 진로 관련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서로 다른 선택지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저울질 했다. | 과거에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여러 선택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주 잘 비교 평가 했다. | • 주술 관계를 명확히 서술해야 함.<br>• '과거' 라는 표현과 동사 과거 시제가 중복되어 과거를 표현하고 있음. '과거' 라는 표현은 불필요함. |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나는 다양한 진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비교하고 평가했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나는 여러 진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평가했다. |
| | Important others have let me know that I have been good at evaluating the choice options that would best meet my needs in making career-related decisions. | 내게 중요한 누군가가 내가 과거에 진로 관련 결정을 할 때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하는 선택 대안을 잘 평가했었다고 알려주었다. |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대안이 나의 필요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잘 평가했었다고 말해주었다. | •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어색함.<br>• 주술 관계를 명확히 서술해야 함.<br>• '과거' 라는 표현과 동사 과거 시제가 중복되어 과거를 표현하고 있음. '과거' 라는 표현은 불필요함.<br>• 직관적으로 의미가 드러나지 않음. '만족' 보다는 '충족' 이라는 표현이 적절함. | 부모님, 선생님 혹은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진로가 나의 필요를 잘 충족시킬지 잘 판단했었다' 고 말해주었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부모, 선생님, 친구 등) 나를 볼 때, 내가 나의 필요에 정확히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잘 판단한다고 말해주었다. |

| | | | | | | |
|---|---|---|---|---|---|---|
| | I have observed people I admire who are resourceful at gathering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career-related decisions. | 나는 진로 관련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잘 모아서 내가 존경한 사람을 관찰한 적이 있다. | 진로 관련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내가 존경하게 된 누군가를 관찰했던 적이 있다. | • '내가 존경하게 된' 이라는 표현이 어색함. '존경할 만큼 잘 수집했다' 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 | 나는 내가 존경할 만큼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잘 수집하는 사람을 관찰했던 적이 있다. | 나는 내가 존경할 만큼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탐색하는 사람들을 관심있게 지켜본 적이 있다. |
| | I have been good at putting my career-related decisions into action. | 나는 나의 진로 관련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잘 했던 적이 있다. | 과거에 진로 관련 결정을 행동에 옮기는 데 능숙했던 적이 있다. | • 주술 관계를 명확히 서술해야 함.<br>• '과거' 라는 표현과 동사 과거 시제가 중복되어 과거를 표현하고 있음. '과거' 라는 표현은 불필요함.<br>• '능숙했던 적이 있다' 를 '능숙했다' 라고 표현해도 자연스러움. | 나는 진로 관련 결정을 행동에 옮기는데 능숙하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나는 내가 내린 진로 결정을 행동으로 잘 옮겼다. |
| | Important others have let me know I do a good job of considering the positives and negatives of different choice options when making career-related decisions. | 내게 중요한 누군가가 과거에 내가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서로 다른 진로 선택지의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했었다는 알려준 적이 있다. |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진로 선택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고려했었다고 말해주었다. | • 주술 관계를 명확히 서술해야 함.<br>• '과거' 라는 표현과 동사 과거 시제가 중복되어 과거를 표현하고 있음. '과거' 라는 표현은 불필요함. | 부모님, 선생님 혹은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로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진로 대안의 장단점을 잘 고려했었다' 고 말해주었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부모, 선생님, 친구 등) 나를 볼 때, 내가 여러 진로의 장단점을 잘 고려한다고 말해주었다. |
| | I have role models who are knowledgeable about how their interests and abilities fit different career options. | 나는 자신들의 흥미와 능력이 여러 진로 선택지들과 어떻게 부합될 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롤 모델을 갖고 있다. | 자신의 흥미와 능력이 여러 진로 선택지들과 어떻게 부합될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롤 모델이 있다. | • 주술 관계를 명확히 서술해야 함.<br>• '선택지' 라는 표현이 어색함. | 나는 자신의 흥미와 능력이 여러 진로대안에 어떻게 부합할 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롤 모델이 있다. | 나는 자신의 흥미와 능력이 각각의 진로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롤 모델들이 있다. |
| | I have been resourceful at gathering the information I need to make career-related decisions. | 나는 진로 관련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일에 재능이 있었다. | 진로 관련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재능이 있었던 적이 있다. | • 명백한 과거형 문장으로는 느껴지지 않음. '재능이 있는 편이다.' 라는 과거-현재 아우르는 현재완료시제로, 시제를 잘 살려 번역해야 함. | 나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재능이 있는 편이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나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수집하였다. |

| | | | | | | |
|---|---|---|---|---|---|---|
| | Important others have let me know that I am good at managing challenges that arise when making career-related decisions. | 내게 중요한 누군가가 내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제기되는 도전들에 잘 대응한다고 알려주었다. |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관리한다고 말해주었다. | • 수정보완이 필요함. | 부모님, 선생님 혹은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로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관리한다' 고 말해주었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부모, 선생님, 친구 등) 나를 볼 때, 내가 진로 결정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잘 해결한다고 말해주었다.<br><br>※ 진로 결정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이란 부모님의 반대,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의미합니다. |
| | I have role models who have explained to me how they chose an academic major or career path. | 나는 자신이 어떻게 학문적 전공 혹은 진로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해주었던 롤 모델이 있다. | 자신이 어떻게 학문적 전공 혹은 진로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해주었던 롤 모델이 있다. | • 수정보완이 필요함. | 나는 어떻게 전공 혹은 진로를 선택 했는지를 잘 설명해준 롤 모델이 있다. | 나는 자신이 어떻게 전공 혹은 직업경로(career path)를 선택했는지를 잘 설명해준 롤 모델들이 있다.<br><br>※ 직업경로(career path)란 하나의 직업(직장) 혹은 여러 개의 직업(직장) 속에서 자신의 직무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의미함. |
| 설명 | When you have approached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tasks over the past year, to what extent have you felt… | 당신이 지난 1년간 진로 탐색과 결정 과업에 접근할 때, 당신이 느낀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 주세요. | 당신이 지난 1년간 진로를 탐색하거나 결정할 때,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 주세요. | • 수정보완이 필요함. | 지난 1년 간 진로를 탐색하거나 결정할 때, 다음의 감정에 대해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의 강도를 나타내 주세요. | 다음은 지난 1년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할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감정을 어느 정도로 경험했는지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지난 1년간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

| | | | | | | |
|---|---|---|---|---|---|---|
| | Very slightly or not at all / A little / Moderately / Quite a bit / Extremely | 거의 없거나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다소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거의 없거나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다소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거의 혹은 전혀 없다/아니다' 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거의 혹은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다소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 문항 | Upset | 당황한 | 당황한 | • 수정보완이 필요함. | 걱정되는 | 혼란스러웠다. |
| | Nervous | 긴장된 | 긴장된 | • '초조한' 으로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함. | 초조한 | 초조했다. |
| | Determined | 확고한 | 확고한 | • - | - | 결연함을 느꼈다. |
| | Inspired | 고무된 | 고무된 | • - | - | 기운을 북돋아 고취된 느낌이 들었다. |
| | Afraid | 두려운 | 두려운 | • - | - | 두려웠다. |
| | Active | 활성화되는 | 활성화되는 | • '활동적인' 이 더 적절함. | 활동적인 | 적극적인 의지가 생겨나는 것 같았다. |
| | Overwhelmed | 압도당한 | 압도당한 | • 한국어에서 '압도당한' 이라는 표현을 잘 안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색함. '절망적인' 등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어쩔 줄 모르는 | 당황스러웠다. |
| | Excited | 흥분된 | 흥분된 | • '신나는' 이 더 적절함. | 신나는 | 신이 났다. |
| 종합 의견 | • 진로학습경험 정의를 수정하여 제시할 것.<br>• 직역과 의역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되도록 능동태를 활용하여 의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음.<br>• 구두점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br>• 감정과 관련된 단어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용어는 다른 단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br>• 공통되는 문장을 뽑아 먼저 제시 후, 각 항목의 문장을 제시하는 등 설문문항 구성 및 제시형태에 구조화가 필요함<br>• 성공 경험 및 언어적 격려 외 대리학습 문항의 경우 별도의 설문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br>• 생소한 용어의 경우 설명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br>• 긍정 및 부정 정서 문항의 경우, 하나의 문장 형태로 제시하며 직역보다는 보다 의역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 | | | | • 수정하여 제시. | |

## [부록 2] 측정 도구 구인타당화 결과

이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안을 실시한 진로탐색의도 및 진로학습경험 척도에 대해서 타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타당화는 안면 타당도 및 구인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실시하였는데, 진로탐색의도 척도의 경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타당화를 실시하였고 진로학습경험의 경우 5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안면 타당도 및 구인 타당도 검증을 모두 실시하였다. 따라서 진로학습경험 척도의 구인타당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학습경험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였다.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MO와 Battlett의 구형성 검증 지표를 확인한 결과, KMO=0.89, 구형성 지표 $\chi^2$=5377.74(df=190, p<.001)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오블리민을 통해 추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도표, 적합도 검정 값,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원 척도의 이론적 가정대로 5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11.22, p<.001). 성공 경험에 대한 3번 문항의 경우, 성공 경험 및 언어적 설득 양 요인에게 모두 부하되게 나타났으며 두 요인에 대한 부하량의 차이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 척도 타당화 과정(Lent et al., 2017)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문항이 부하되는 요인 특정 및 최종 요인구조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최종 20문항의 5요인 척도가 확정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Cronbach $\alpha$는 다음과 같다($\chi^2$=411.22, p<.001).

| 요인명 | 문항 번호 | 요인부하량 | | | | | Cronbach $\alpha$ |
|---|---|---|---|---|---|---|---|
| | | 부정정서 각성 | 대리 학습 | 언어적 설득 | 성공경험 | 긍정정서 각성 | |
| 부정정서각성 | 14 | **0.86** | -0.04 | -0.03 | 0.09 | -0.01 | |
| | 17 | **0.83** | -0.02 | 0.04 | -0.03 | 0.01 | |
| | 13 | **0.82** | 0.03 | 0.01 | 0.02 | 0.05 | |
| | 19 | **0.77** | 0.01 | 0.09 | -0.12 | 0.13 | |
| 대리 학습 | 11 | -0.03 | **0.9** | -0.04 | 0.01 | 0 | |
| | 9 | 0.02 | **0.88** | -0.04 | -0.02 | 0.03 | |
| | 10 | -0.08 | **0.8** | 0.05 | -0.02 | 0.01 | |
| | 12 | 0.06 | **0.74** | 0.09 | 0.01 | -0.04 | |
| 언어적 설득 | 8 | -0.03 | 0.01 | **0.9** | -0.09 | 0.02 | |
| | 6 | 0.1 | -0.01 | **0.78** | 0.07 | 0.04 | |
| | 5 | -0.01 | 0.07 | **0.67** | 0.25 | 0 | |
| | 7 | 0.05 | 0.14 | **0.66** | 0.23 | -0.05 | |
| 성공 경험 | 2 | -0.02 | 0.04 | -0.02 | **0.88** | 0 | |
| | 1 | 0.03 | -0.01 | 0.12 | **0.76** | 0.02 | |
| | 4 | -0.02 | 0.01 | 0.17 | **0.71** | 0.06 | |
| | 3 | 0.01 | -0.01 | **0.42** | **0.45** | 0.02 | |
| 긍정정서각성 | 16 | 0 | 0.02 | 0.12 | -0.07 | **0.83** | |
| | 18 | 0.13 | 0.04 | -0.17 | 0.32 | **0.69** | |
| | 20 | 0.29 | 0.14 | 0.03 | 0.03 | **0.66** | |
| | 15 | -0.56 | -0.01 | 0.06 | -0.02 | **0.60** | |
| 고유값 | | 3.18 | 2.93 | 3 | 2.73 | 2.08 | |
| 분산(%) | | 16 | 15 | 15 | 14 | 10 | |
| 누적(%) | | 16 | 31 | 46 | 59 | 7 | |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5요인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성공 경험의 한 문항이 언어적 설득에도 부하되는 것을 확인하여, 성공 경험 및 언어적 설득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요인으로 투입하여 만든 4요인 구조와 원 척도의 이론적 근거에 다른 5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각각 확인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구조의 모형의 적합도가 4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 보다 우수하다고 나타났다.

4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chi^2(164, N=529) = 620.144$, $p<.001$; CFI = 0.914; TLI=0.900, SRMR = 0.070, RMSEA = 0.073. 5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chi^2(160, N=529) = 497.996$, $p<.001$; CFI = 0.936; TLI=0.924, SRMR = 0.067, RMSEA = 0.063. 따라서 4요인 구조 모형보다 5요인 구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부록 3] 측정 도구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진로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하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은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부모진로지지, 진로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결과기대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대학생의 진로 교육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총 10쪽** 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하 재 영
지도교수 최 수 정

【연구자 연락처】 하재영 전화: 010-8971-3808, email: chal0060@hanmail.net

Ⅰ. 다음은 여러분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두 달 동안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② 진로에 관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③ 내가 가진 능력과 흥미가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④ 진로선택에 필요한 교육을 모두 받으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⑤ 다른 전공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대학의 선배나 조언자들과 이야기하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⑥ 나의 흥미와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⑦ 진로에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더 알아보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⑧ 여러 진로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⑨ 나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로 방향(혹은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진로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⑩ 진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II.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신이 흔히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혹은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 1 | 2 | 3 | 4 | 5 |
| ②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 1 | 2 | 3 | 4 | 5 |
| ③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④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 1 | 2 | 3 | 4 | 5 |
| 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⑥ 상상력이 풍부하다. | 1 | 2 | 3 | 4 | 5 |
| ⑦ 어질러져 있으면 즉각 청소한다. | 1 | 2 | 3 | 4 | 5 |
| ⑧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⑨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⑩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⑪ 사교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 | 1 | 2 | 3 | 4 | 5 |
| ⑫ 이해가 빠른 편이다. | 1 | 2 | 3 | 4 | 5 |
| ⑬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 1 | 2 | 3 | 4 | 5 |
| ⑭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⑮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 1 | 2 | 3 | 4 | 5 |
| ⑯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 1 | 2 | 3 | 4 | 5 |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⑱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⑲ 내 물건들을 잘 정돈하지 않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⑳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㉑ 여러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 1 | 2 | 3 | 4 | 5 |
| ㉒ 일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㉓ 사람들과 별로 할 얘기가 없다. | 1 | 2 | 3 | 4 | 5 |
| 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㉕ 물건들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 1 | 2 | 3 | 4 | 5 |
| ㉖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 1 | 2 | 3 | 4 | 5 |
| ㉗ 추상적인 관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 1 | 2 | 3 | 4 | 5 |
| ㉘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다. | 1 | 2 | 3 | 4 | 5 |
| ㉙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과묵해진다. | 1 | 2 | 3 | 4 | 5 |
| ㉚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 하다. | 1 | 2 | 3 | 4 | 5 |

Ⅲ. 다음은 '**부모의 진로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 가족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신다. | 1 | 2 | 3 | 4 | 5 |
| ②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 1 | 2 | 3 | 4 | 5 |
| ③ 학비를 지원해 주신다. | 1 | 2 | 3 | 4 | 5 |
| ④ 내가 미래의 진로에 대해 걱정할 때, 나와 함께 이야기하신다. | 1 | 2 | 3 | 4 | 5 |
| ⑤ 진로에 관해서 나의 입장을 존중해주시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신다. | 1 | 2 | 3 | 4 | 5 |
| ⑥ 내가 원하면 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내주실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⑦ 나의 취업(진학) 및 진로준비를 위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해주신다. | 1 | 2 | 3 | 4 | 5 |
| ⑧ 나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신다. | 1 | 2 | 3 | 4 | 5 |
| ⑨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 1 | 2 | 3 | 4 | 5 |
| ⑩ 내 진로문제를 이해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다. | 1 | 2 | 3 | 4 | 5 |
| ⑪ 나에게 장래 희망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 | 1 | 2 | 3 | 4 | 5 |
| ⑫ 나를 자신의 직장동료와 만나게 해주신다. | 1 | 2 | 3 | 4 | 5 |
| ⑬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알려주신다. | 1 | 2 | 3 | 4 | 5 |
| ⑭ 나는 장래 진로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⑮ 내가 취업(진학)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 1 | 2 | 3 | 4 | 5 |
| ⑯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단점과 전망을 알려주신다. | 1 | 2 | 3 | 4 | 5 |
| ⑰ 나에게 자신이 일하시는 곳을 보여주신다. | 1 | 2 | 3 | 4 | 5 |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⑱ 원하시는 진로와 나의 의견이 다를 때라도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1 | 2 | 3 | 4 | 5 |
| ⑲ 내가 시대흐름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주신다. | 1 | 2 | 3 | 4 | 5 |
| ⑳ 나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아무리 큰 돈 이라도 마련해 주신다. | 1 | 2 | 3 | 4 | 5 |

Ⅳ. 다음은 '**진로학습경험**'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은 **과거** 여러분이 내렸던 **진로결정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진로를 선택할 때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나는** | 1)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 1 | 2 | 3 | 4 | 5 |
| | 2) 여러 진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평가했다. | 1 | 2 | 3 | 4 | 5 |
| | 3) 내가 내린 진로 결정을 행동으로 잘 옮겼다. | 1 | 2 | 3 | 4 | 5 |
| | 4)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수집하였다. | 1 | 2 | 3 | 4 | 5 |
| **다른 사람들은** (부모, 선생님, 친구 등) **나를 볼 때,** | 1) 내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수집한다고 말해주었다. | 1 | 2 | 3 | 4 | 5 |
| | 2) 내가 나의 필요에 정확히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잘 판단한다고 말해주었다. | 1 | 2 | 3 | 4 | 5 |
| | 3) 내가 여러 진로의 장단점을 잘 고려한다고 말해주었다. | 1 | 2 | 3 | 4 | 5 |
| | 4) 내가 진로 결정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잘 해결한다고 말해주었다.<br>※ **진로 결정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이란 부모님의 반대,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의미합니다. | 1 | 2 | 3 | 4 | 5 |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 결정에 능숙한 다른 사람을 관찰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중요한 진로 결정을 잘 내리는 롤 모델들이 있다. | 1 | 2 | 3 | 4 | 5 |
| 2) 내가 존경할 만큼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탐색하는 사람들을 관심있게 지켜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3) 자신의 흥미와 능력이 각각의 진로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롤 모델들이 있다. | 1 | 2 | 3 | 4 | 5 |
| 4) 자신이 어떻게 전공 혹은 직업경로(career path)를 선택했는지를 잘 설명해준 롤 모델들이 있다.<br><br>※**직업경로(career path)**란 하나의 직업(직장) 혹은 여러 개의 직업(직장) 속에서 자신의 직무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의미함. | 1 | 2 | 3 | 4 | 5 |

다음은 지난 1년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할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감정을 어느 정도로 경험했는지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간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혼란스러웠다. | 1 | 2 | 3 | 4 | 5 |
| 2) 초조했다. | 1 | 2 | 3 | 4 | 5 |
| 3) 결연함을 느꼈다. | 1 | 2 | 3 | 4 | 5 |
| 4) 기운을 북돋아 고취된 느낌이 들었다. | 1 | 2 | 3 | 4 | 5 |
| 5) 두려웠다. | 1 | 2 | 3 | 4 | 5 |
| 6) 적극적인 의지가 생겨나는 것 같았다. | 1 | 2 | 3 | 4 | 5 |
| 7) 당황스러웠다. | 1 | 2 | 3 | 4 | 5 |
| 8) 신이 났다. | 1 | 2 | 3 | 4 | 5 |

Ⅴ.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활동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나의 성격에 맞는 진로를 파악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② 나의 기량(skill)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진로를 찾을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③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업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고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④ 내가 즐겁게 일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대해 더 알아 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⑤ 나의 기량(skill), 가치, 흥미를 직업과 연결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⑥ 내가 원하는 직업경로(career path)를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다.<br>※**직업경로(career path)**란 하나의 직업(직장) 혹은 여러 개의 직업(직장) 속에서 자신의 직무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의미함. | 1 | 2 | 3 | 4 | 5 |
| ⑦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 하는 직업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⑧ 나의 흥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진로를 찾을 수 있다. | 1 | 2 | 3 | 4 | 5 |

Ⅵ. 다음은 '**진로결정결과기대**'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알게 되어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기대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가 나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알게 되어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②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③ 그 직업분야에 관련된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④ 나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일을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⑤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⑥ 일을 하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⑦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⑧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⑨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을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⑩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을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⑪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 1 | 2 | 3 | 4 | 5 |
| ⑫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Ⅶ.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거나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
| 2.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만 _____세 |
| 3. 귀하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 ① 3학년 ② 4학년 ③ 5학년 이상(초과학기) |
| 4. 귀하의 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
| 5. 귀하의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자연·이공 계열 ② 인문·사회 계열 ③ 사범계열<br>④ 의약계열 ⑤ 예체능 계열 ⑥ 기타 |
| 5-1. 귀하의 세부전공(학과)명은? | _____ |
| 6. 귀하의 전공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 7. 귀하의 학점은 무엇입니까? (4.3 / 4.5 / 4.0 만점 중 택하여 응답) | _____(4.3 만점) / _____(4.5 만점) / ____(4.0 만점) |

# Abstract

## A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Personalit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By Jae-Young Ha

Thesis for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9

Major Advisor: Su-Jung Choi,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relationship among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to Personalit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ocial Cognitiv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path analysis which was based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college students in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total number of four-year college students in Korea was 1,467,125 as of 2017, with 572,418 in metropolitan areas and 894,707 in non-metropolitan areas. As a result, the sample was divided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 - metropolitan area, and the gender and major that coul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rvey results were also considered in sampling.

The questionnaire was used to survey the nine categories of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opennes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outcome expectation, general characteristic. The items requiring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were translated with the help of experts and the items requiring revised were revis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nd online survey from October 1th to September 19th 2018. 54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529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o identify the demographic personality of subjects and the overall level of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error were conducted. Also, to estimate parameters of proposed research model, path analysis was used. All data analysis was carried by R 3.6.1 and alpha level of 5% was set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rec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 Second, social cognitive factors did affect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Third, characteristic(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openness) had indirect effects on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which were mediated by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outcome expectation. Fourth,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had indirect effects on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which were mediated by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outcome expectation.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policy use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eded further research and policy which examine closely the impact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 on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Second, further research design need to be developed to include other variables for predicting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Third, refining measure of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 is needed. Fourth, career counselors should improve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by increasing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Keywords :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opennes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learning experienc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outcome expectati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areer self-management model

Student Number : 2016-25427

# 감사의 글

부족하지만 석사학위논문을 마치며,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도교수이신 최수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논문 모형 설정에서부터 방법론까지 꼼꼼히 지도해주시고 대학원 생활과 학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따뜻하게 지도해주셔서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논문 결과를 수정하는 가운데 방향을 설정해주시고 도와주신 정진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 방법을 지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나승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계획서 작성 과정 가운데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김진모 교수님, 연구자의 자세를 가르쳐주신 정철영 교수님, 연구실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자주 돌아봐주신 이찬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 작성 가운데 피드백과 조언을 주신 임정훈 선배님, 김태환 선배님, 홍성표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측정도구 번안 가운데 도와주신 임소현 선배님과 고은언니, 이혜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 설문을 도와주신 한정숙 교수님, 수지 언니, 하경이, 혜린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설문 조사가 막막하기만 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감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늘 함께하는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명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우리 연구실을 잘 꾸려나가는 수현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웃음으로 대화해주시는 고은언니, 공부와 학업 여러 면에서 잘 챙겨주는 자경쌤, 저를 늘 지지해주시는 성지쌤,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들을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귀영언니, 걱정하는 제게 여러 가지로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현주쌤, 같이 연구하면서 큰 도움과 의지가 되었던 지식쌤, 태국에서 오셔서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하시면서도 저를 배려해주시고 걱정해주셨던 남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학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진주언니, 영주언니, 현민언니, 보람선생님, 인준쌤, 그리고 그 외의 학과의 선후배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의 큰 도움이 되어주신 세분의 스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자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이자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발견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조차 못한 채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사실 하나가 의지할 곳 없던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신 유승자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아픔을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동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보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외고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었고,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대학원에 붙여주신 분들, 성지쌤과 혜린이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과정을 완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지쌤이 관정 앞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며 위로해주었던 그 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혜린이가 힘들어하던 제 옆에서 함께 해주며 같이 밤을 새주었던 그 날도 잊지 못할 거 같아요. 대학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고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로 제가 끝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기들 홍용오빠, 혜은선생님, 혜정선생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평에서의 시간이 꿈처럼 정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더욱 자주 만나며 교제해요!!

사랑하는 창대교회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된 교회 지체 여러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나리, 하은이, 하경이, 지은이, 수연이..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또 다른 가족 창대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쉼과 기쁨을 주었던 조카 서아 서연이에게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언니와 형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니 가정으로부터 받는 따뜻함과 안정감으로 대학원에서 지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엄마에게는 다소 무뚝뚝한 딸이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도 감사합니다. 석사논문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가족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좋은 딸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꺼져가던 심지와 같던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하던 제 마음과 삶을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안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해주셨으며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부족한 이 논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제 삶을 통해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